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하루

2013

ONE  
DAY

Festival [www.thc-project.com](http://www.thc-project.com)

7.12 fri. 19:30



흔히 사람들은  
정치 경제를 바꿔야 문화가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치 탓,  
경제 탓을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가 바뀌면  
다른 것이 함께 바뀌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겠지요.  
이제는 그 기본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백 개의 공연장,  
오천 회의 공연 기획.  
이 숫자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아닌,  
가능한 일을 실천하려는  
**THE House Concert**의  
의지입니다.

\_ 예술감독 박창수

## 박창수를 만나다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들더라도 아직은 포기해선 안된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자서전 <미완의 시대>에 남겨진 마지막 구절이다.  
그리고 여기, 옳은 길이라 믿는 신념대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개인으로 조용히 시작했던 일이 공공의 것이 되어버린 사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의 조용한 외침을 따라가보자.

(글: 더하우스콘서트 수석 매니저 강선애)



### 마루에서 시작된 공연, The House Concert

2002년 7월 12일, 자택을 개조해 처음 시작하셨던  
'하우스콘서트'가 올해로 벌써 11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기간 하우스콘서트를 지탱해준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11년을 이어 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대부분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무대는 경제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분위기가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려다 보니, 뭔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것이  
문화기획이라 판단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자나 관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우스콘서트는 옳은  
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두고, 그것을 계속 실행해  
나갈 뿐입니다.

하우스콘서트를 진행해 오시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이 “행복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길 때라고 하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반대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우스콘서트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희생을  
당연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마주했을 때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우스콘서트에서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발전적인 문화 운동이라는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 합니다만  
개인의 일이 공공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초차도,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인 사회 구조 속에서  
제가 자처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 당신이 희생하세요'라는 느낌이 들 때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제가 하우스콘서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인 문화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11년간 운영해온 '더하우스콘서트'  
하나만은 어떤 면에서 작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미 전국에 300여 개의 비슷한 형식의  
하우스콘서트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각각의 공연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각 지역의 문화의식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뿌리가 만들어지는 일이니깐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작업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문화행정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것이 전국에 있는 많은 공연장들을 보며 느끼는  
점입니다.

하우스콘서트는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문화를 다지는 것이 하우스콘서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저는 11년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연장이라는 대상으로 진화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우스콘서트 극장판 시대가 열리다

2012년 하우스콘서트 10주년을 맞아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100개의 공연을 여는 획기적인 공연 <2012 프리,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전국의 균형적인 문화 발전을 위해 시작된 지난 페스티벌 이후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요?

하우스콘서트를 10여 년 동안 만들다 보니, 한국에는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은 반면 공연 무대와 새로운 관객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전국에 훌륭한 시설을 갖춘 중극장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연장이 400여 개나 있지만 기동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매칭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것을 10주년이 되던 해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21개 도시의 23개 극장에서 100개의 공연이 열렸던 <2012 프리, 뮤직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하우스콘서트의 형식을 극장에 그대로 가져와 관객들을 객석 대신 무대 위에 방석을 이용해 앉도록 했던 방법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셨던 분들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 사랑방 찾듯 공연장을 찾아주셨고, 그분들의 환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2012년 페스티벌은 2013년부터 지역 공연장에서 하우스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열 수 있도록, 이런 공연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는 관객들이 없다'고 했던 공연장 관계자들도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극장도, 관객들의 의식도 혼들여놓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한번에 어떤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2013 원데이 페스티벌>은 일주일의 축제였던 작년과는 달리 단 하루만 진행합니다. 작년과 같은 형식이 아닌, 보다 발전된 형태로 진행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앞서 이야기 했듯 흔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작년 페스티벌 이후로 2013년 1월부터 전국의 몇몇 극장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회부터 많게는 연간 16회를 진행하는 극장도 있습니다.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국 150여 개의 극장을 직접 찾아 다녔지만,

더 많은 극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작년과 같은 페스티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에 일주일 동안 100개의 공연이었다면 단 하루, 같은 시간에 동시에 100개는 어떨까.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여러 상황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애초에 1일 100개의 공연을 열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65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은 없으신지요? 혹시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하루에 100개의 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100개나 되는 공연을 해냈다는 우리나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만큼 좋은 연주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하루에 100개의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많다는 비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65개의 공연에 그치게 되었지만 이중 실제 공연장은 17개뿐입니다. 비어 있는 극장들이 많이 있는데도 17개 밖에 안된 것은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겠지요. 이는 전반적으로 기초문화가 다져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안공간을 더 추가해서 100개의 공연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기초문화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공연장의 참여가 미비하다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5개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65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앞서 '기초문화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해주신다면요.

먼저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각적이고 직접적이라는 특성으로 대중과 영합하는 것이 대중예술인 반면, 예술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 순수예술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둘 다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대중예술은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5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수예술, 즉 기초문화가 튼튼히 받쳐줄 때 그 다음 세대의 대중예술이 발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의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500년 전의 클래식 음악이 없었다면 지금 대중예술은 다른 모습일 겁니다. 기초문화가 항상 먼저 미리 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예술이 발전하는 것이 문화발전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현재 대중예술에 대한 기반으로써 기초문화가 튼튼하게 받쳐줄 때 이후의 대중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문화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는 대중예술만 있을 뿐, 근간이 되는 기초문화는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중예술을 좇는 95%의 사람들에게 나머지 5%의 기초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창조해내야 하는 예술가들은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예술가를 직업화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콘서트까지 하는 일은 이러한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곡가 박창수

선생님께서서는 집에서 공연을 여는 것, 일주일에 100개의 공연을 하는 것, 그리고 이번 원데이 페스티벌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실현해 오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그건 아마도 제가 실험예술과 작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우스콘서트 대표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작곡가로서 하우스콘서트를 통해 하는 모든 일을 저의 작품을 만들 듯이 구조화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작이라는 것은 실험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실험정신이 하우스콘서트도 가능하게 했고, 일주일에 100개, 하루에 65개 공연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봐도 될까요?

누군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그것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많은 걸 생각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니까요.

예술감독 박창수

64년 서울생. 세계 2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뮤직 퍼포먼스 분야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86년 바탕골 소극장에서 뮤직 퍼포먼스로 정식 데뷔하였으며, 이후 매 작품마다 각각 다른 형식과 양식을 통해 늘 새로움을 추구해오고 있다. 1995년부터 '김영희 MUTDANCE'의 음악감독으로 참여하는 등 무대음악 작업을 병행해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무성영화에 즉흥연주로 음악을 입히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아트시네마와 주한독일문화원이 공동주최한 <운아힐리시 스페셜>을 비롯 전주국제영화제, 세네프 영화제 등에서 즉흥 연주를 통한 무성영화의 독특한 해석을 선보인 바 있다.

박창수는 국내 공연문화계에 대한 예민한 문제의식과 탁월한 프로그램 기획력을 인정받으며 수준 높고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2년부터 한국 최초로 자택에서 하우스콘서트를 시작하였으며 11년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350회 가량 무대에 올렸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인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하우스콘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그는 하지만 생생한 소통이 오가는 공연으로 풀뿌리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다.

하우스콘서트 200회 기념으로 '하우스콘서트, 그 문을 열면'을 출간하였으며, 2010년에는 자신의 실험정신이 담긴 즉흥 연주 음반인 'Infinite Finitude'를 발매한 바 있다.

MAP

# 2013 원데이 페스티벌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18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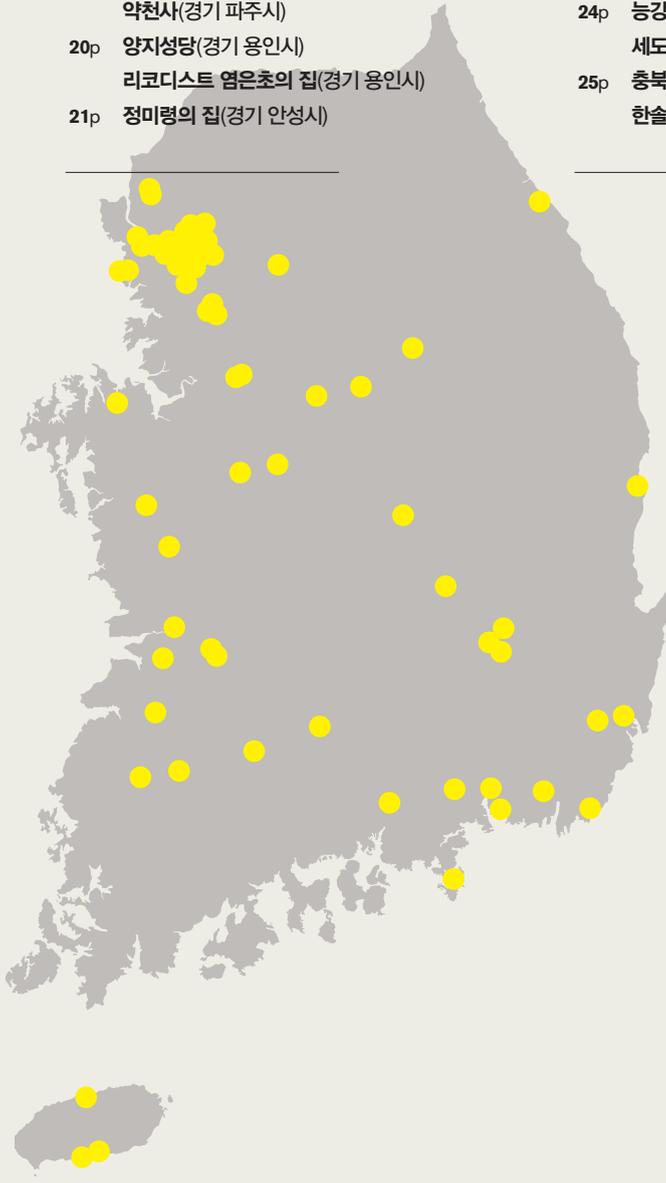
- 06p 강북문화예술회관(강북구)  
가본곳(광진구)
- 07p 골든에이지(마포구)  
국제명상아카데미AOMA(광진구)
- 08p 김영조의 집(용산구)  
대안공간 문(영등포구)
- 09p 마리아칼라스홀(강남구)  
명지고등학교(서대문구)
- 10p 반줄(종로구)  
북촌로 11길 58(종로구)
- 11p 세상에서제일작은한평극장(종로구)  
아뜰리에 플라뇌르(영등포구)
- 12p ART.C(강남구)  
영등포문화원(영등포구)
- 13p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영등포구)  
요기가 표현갤러리(마포구)
- 14p 율하우스(강남구)  
홍대 걷고싶은거리(마포구)

경기도 / 인천광역시 (13곳)

- 15p 과천시민회관(경기 과천시)  
계양문화회관(인천 계양구)
- 16p 광탄성당(경기 파주시)  
국립암센터(경기 고양시)
- 17p 김정욱의 집(경기 안성시)  
늘푸름교회(인천 남동구)
- 18p 전위예술가 무세중의 집-소도(蘇塗)(경기 고양시)  
박상일의 집(경기 양평군)
- 19p 보명사(경기 용인시)  
약천사(경기 파주시)
- 20p 양지성당(경기 용인시)  
리코디스트 염은초의 집(경기 용인시)
- 21p 정미령의 집(경기 안성시)

충청도 / 세종특별자치시 (8곳)

- 22p 당진문예의전당(충남 당진시)  
음성문화예술회관(충북 음성군)
- 23p 청양문화예술회관(충남 청양군)  
깊은산속 웅달샘(충북 충주시)
- 24p 능강숲대문화공간(충북 제천시)  
세도초등학교(충남 부여군)
- 25p 충북문화관(충북 청주시)  
한솔중학교(세종시)



경상도 / 대구·부산·울산광역시 (14곳)

- 26p 경남문화예술회관(경남 진주시)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대구 북구)
- 27p 예주문화예술회관(경북 영덕군)  
울주문화예술회관(울산 울주군)
- 28p 윤이상기념공원(경남 통영시)  
함안문화예술회관(경남 함안군)
- 29p 해운대문화회관(부산 해운대구)  
구미역(경북 구미시)
- 30p 김주연의 집(경남 김해시)  
까페 사람이야기(대구 동구)
- 31p 다별자연학교(경남 함양군)  
상주보육원(경북 상주시)
- 32p 아트팩토리 청춘(대구 중구)  
해군9전단(경남 창원시)

전라도 (8곳)

- 33p 김제문화예술회관(전북 김제시)  
익산소리문화예술회관(전북 익산시)
- 34p 장성문화예술회관(전남 장성군)  
대담미술관(전남 담양군)
- 35p 사랑의광장(전북 남원시)  
전주한옥생활체험관(전북 전주시)
- 36p 정애자의 집(전북 정읍시)  
창작지원센터 제2호(전북 전주시)

강원도 (1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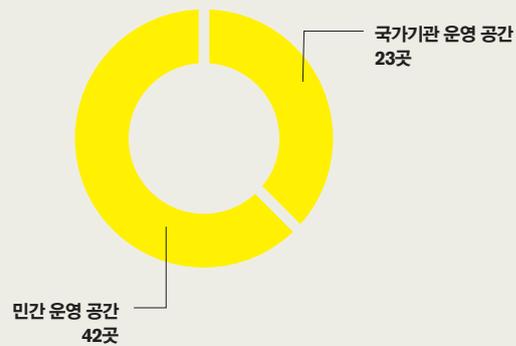
- 37p 작은공연장 단(강릉시)

제주도 (3곳)

- 37p 카페세바(제주시)  
본태박물관(서귀포시)
- 38p 제주스테이 비우다(서귀포시)

공간 성격별 분포

문화예술회관 (지자체 운영 소극장 포함)	17
소공연장 (민간운영)	12
대안공간	
- 가정집	8
- 종교기관	5
- 학교	3
- 군부대	1
- 기타	19
(미술관, 카페, 보육원, 기차역사 등)	



PLACE

## 강북문화예술회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강북문화예술회관은 666석의 좌석과 생동감 넘치는 무대, 그랜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피트, 최신식 음향, 조명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강북구 유일의 공연장으로서 각종 연주회, 뮤지컬, 연극, 영화 등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으로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PROFILE

### 김예지 (Piano)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는 두 살 때 시력을 잃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거부하고 일반전형으로 숙명여대 음대에 입학하여 2004년 졸업과 함께 명예 대통령상인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피바디 음악원 석사를 마친 후 현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박사 과정 중에 있다.

### 이민정 (Piano)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 후 미국 인디애나 음대 석사, 예일 음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건국대 부교수, 한국페스티벌영상블, SOMA Trio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PROGRAM

슈베르트 4개의 즉흥곡, 작품 90 - 제3번 & 제4번  
모차르트 4개의 손을 위한 소나타 D장조, 작품 381  
슈베르트 4개의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작품 940  
브람스 4개의 손을 위한 헝가리 무곡 - 제1번 & 제5번



김예지



이민정

## 가본곳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가본곳은 뮤지션 마호가니 킹의 이말씨, 제이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송승가무단의 연습실 겸 공연장으로 매달 동네 주민들을 위한 어쿠스틱 공연을 열어 왔으며 '새로운 놀이문화 제안'을 목표로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새롭고 진지한 분위기의 마피아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무용 움직임을 통한 몸 워크숍 '몸안의 보석' 역시 가본곳에서 기획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송승가무단은 '가본곳'을 보금자리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구의동과 광장동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송승사교클럽>

#### 마호가니 킹 (네오소울밴드)

2003년 결성된 마호가니 킹은 흥대를 기반으로 라이브 공연 활동을 하다가, 2009년 '송승가무단'으로 다원예술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CJ AZIT 공연, 컨시 존스 내한 기념 공연,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기획 바리바리 춤춤 디딤새 '펑귄' 공연,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축하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관객과 만나고 있으며, 싱글 <To.yibam>, <J.shin - 나비잠> 등의 앨범을 발매하였다.

#### 리휘 (안무)

중국에서 태어난 안무가 리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바리바리 춤춤 디딤새 '펑귄', 오페라 투란도트, 개미의 똥, 기억 등의 작품 안무를 맡았다.

#### 송용창 (가수, 작곡가)

서울에서 태어난 가수 겸 작곡가 송용창은 2011년 <당신은 천사인가요>, 2012년 1집 <항해>, 2013년 2집 <입술>을 발매했다. 2006년 여진 - Song For You, Can You Hear Me? 등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 만나다 (Meet the Art)

마룻바닥에 앉아서 보는 하우스콘서트는 아티스트와 관객 간의 특별한 소통을 만들어 낸다. 인디씬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네오 소울 뮤지션 마호가니킹과 종합 예술가 리휘, 재즈 기타리스트 송용창이 관객의 코앞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나누다 (Talk with the Art)

공연이 끝난 후의 여운은 아티스트, 기획자들과 함께하는 포트럭 파티로 이어진다. 각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되는 이 파티는 참가자 모두의 개인적인 고민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에 이르기까지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마호가니 킹



리휘



송용창

PLACE

## 골든에이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동교동에 위치한 골든에이지는 Culture Core Cafe를 표방하며 지난 2012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황신혜 밴드의 리더이자 일명 '무규칙이중예술가'로 전방위 활동을 하고 있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태와 그의 아내 조각가 전정원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펼쳐지는 Golden Live 시리즈로 이른바 인디 뮤직의 메카로 자리하고 있는 흥대 앞 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PROFILE

### 이보경 (Violin)

2012년 <Paganini 24 Caprices>와 <Virtuosa> 앨범을 동시에 발매하며 솔리스트로서도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보경은 미국 커티스 음대와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9세 때 KBS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데뷔한 후 수원시향, 대구시향, 유라시안필, TIMF 앙상블 등과 협연하였으며, 서울시향 제1바이올린 부수석을 역임하였다. 2013년에는 디토 오케스트라와 TIMF 앙상블 객원 악장을 맡았으며, KBS 창사 40주년 기념음악회에 초청받아 연주하였다.

### 이제찬 (Piano)

서울예고,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파리에서 국립음악원오케스트라 피아노 단원을 역임한 피아니스트 이제찬은 현재 리베아트센터의 음악감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리베아트홀 콘서트'를 연주 및 진행하고 있다.

PROGRAM

한데미트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작품 31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F장조, 작품 24 '봄'  
생상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이보경

이제찬

## 국제명상아카데미 AOMA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국제명상아카데미AOMA는 광나루 한강변 광진정보도서관 옆 경관 좋은 곳에 자리잡은 인도 전통 하타요가 명상수행센터입니다. 1996년 4월에 이 건물로 이전한 이후 까이발리아다마 전통의 인도 정통 요가 명상 수행법을 한국 사회에 바르게 전파하기 위한 헌신과 노력, 수행혼이 깃들여 있는 곳입니다.

### 서민정 (Violin)

한예종 예술사와 전문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했고,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숙명여대, 대구 가톨릭대, 수원대, 예술의전당 음악 영재 아카데미에 출강 중이다.

### 이수정 (Cello)

서울대 수석입학,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합격 및 마스터 과정을 수료했다. 예후디 메뉴힌 재단 오디션 합격 및 순회연주를 하였으며 현재 We Soloists 앙상블, Trio Con Anima 멤버로 활동 중이다.

### 박소연 (Piano)

한예종 졸업 후 2009년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오디션에 합격하여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시리즈 독주회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쇼팽,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 독주회'를 가졌다. KBS교향악단, 코리아 심포니, 수원시향, 전주시향 등과 협연하였으며, 현재 전주예고, 한예종, 선화예술학교 강사로 활동 중이다.

브람스 피아노 3중주 제1번 B장조, 작품 8 - 3, 4악장  
아렌스키 피아노 3중주 d단조, 작품 32 - 1, 4악장  
친필드 카페 뮤직  
피아졸라 피아노 3중주를 위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여름', '가을'



서민정

이수정

박소연

PLACE

# 김영조의 집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저희 집에서 열리는  
하우스콘서트  
원데이 페스티벌이  
관객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은  
기대감에 설렙니다.

PROFILE

### <소리공감-너루>

소리공감 너루는 2007년 결성된 단체로 서울대 음대 국악과 03번 동기생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너루'란 순 우리말로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고 오래도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현대 사회 모든 것이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침표'를 주고 싶다는 이들은 201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으로 선정되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민정 (아쟁)** 서울대 국악과 졸업. 현재 동대학원 재학 중.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전수자

**김보현 (작곡, 피아노)** 서울대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 중. 제27회 동아국악콩쿠르작곡부문금상 수상

**왕서은 (판소리)** 서울대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한국고음반연구회, 판소리학회 회원

**허윤재 (해금)** 서울대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 중

**김예슬 (타악)** 서울대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 중

PROGRAM

### <평조희상> 중 '타령'

명상  
지영희 류 해금산조  
판소리 <박봉술 제 춘향가> 중 '사랑가'  
박종선 류 아쟁산조  
오페라 <봄봄> 중 안성택 아리아 '봄이네 봄이야'  
Good luck to you  
시나위 And



김민정



김보현



왕서은



김예슬



허윤재

# 대안공간 문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독립적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공간인 <대안공간 문>은  
문래예술창작촌의  
문화예술단체 <보노보C>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2011년  
4월에 실험적으로 문래동  
작가들의 열린 작업공간으로  
개방되었고, 2011년 8월  
공식 오픈 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운영되는  
공간이며 매달 셋째 주 주말  
오후 7시에 열리는 정기적인  
문화행사인 'Art Meet  
Sound 프로젝트'와 그 외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 마르한 (Vocal)

한국적인 정서와 개성 있는 창법으로 아름다운 가사들을 전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 Passion Flower (Garage rock duo)

2013년 초반에 결성된 개러지 록 듀오. 소리를 섞고, 리듬을 변형시키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을 좋아함

### 회기동 단편선

2004년 처음으로 클럽에서 공연하기 시작한 이후 2006년부터 1인 포크 프로젝트로 활동하기 시작함. 한국의 옛 가요와 영미 언더그라운드 포크, 인디록의 영향을 받음. 활동가, 자유기고가 및 자립음악생산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 Missing Lucille (Hard Rock Band)

미싱 루실은 블루지한 하드락을 바탕으로 락음악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에너지와 사운드, 같은 세대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감수성을 표현해 내고자 하며 얼터너티브 락, 모던락, 포크락까지 아우르는 하드락 밴드

본 공연은 즉흥 선곡으로 진행됩니다.



마르한



회기동 단편선



Missing Lucille

PLACE

# 마리아칼라스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마리아칼라스홀은 무대와 객석이 매우 가까운 51석의 소규모 공연장으로,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되어 소통하면서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연, 음향, 영상이 최적화된 마리아칼라스홀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시고, 차별화된 복합 문화 서비스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PROFILE

### 강웅 (Guitar)

보스톤 버클리 음대 기타 퍼포먼스 학사, 뉴욕대 재즈 퍼포먼스 석사를 졸업하고 2011년 월간 재즈피플 선정 라이징스타에 선정된 바 있는 기타리스트 강웅은 현재 송실대, 백석대, 나사렛대의 외래교수이다.

### 고희안 (Piano)

보스톤 버클리 음대 재즈 퍼포먼스 학사와 뉴욕대 재즈 퍼포먼스 석사를 졸업하고,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프렐류드 공연 외 다수의 공연을 하였으며, 현재 국제예술대학 전임교수, 숙명여대 외래 교수, 재즈밴드 프렐류드의 리더로 활동 중이다.

### 김혜미 (Vocal)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과 보컬을 전공한 그녀는 솔로 1집 앨범 Smoothy를 발매하여 문화관광부 주관 우수 신인 음반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김혜미 콰르텟 리더, KUMA PARK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PROGRAM

- Ms.Celie's Blues
- One Note Samba
- It Don't Mean A Thing
- Dindi
- I Wish You Love
- Too Darn Hot



강웅



고희안



김혜미

# 명지고등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서울 서대문구 명지2길 백련산 아래에 있는 명지고등학교는 개교한지 60년이 훌쩍 넘은 학교로 앵커 백지연, 테너 임웅균 등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는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명문고입니다.

### 김희숙 (Flute)

서울대 음대와 독일 윈스터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현대음악제, 아시아현대음악제,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등에서 연주하였으며 서울국제작곡콩쿠르에서 창작 연주 부문을 수상하였다. 현재 CMB567 멤버로 활동 중이다.

### 이성우 (Classic Guitar)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후, 일본 오카야마 시의 아시아 음악제 초청 연주 및 한국, 파라과이 문화 협의회로 활동하였으며, 최근에는 도이치 그라모폰(DG) 레이블로 리처드 용재 오닐과 듀오 연주 음반을 발매하였다. 현재 한예종, 서울예고, 중국 상해음대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 비제 아틀르의 여인 모음곡 - 제2번 '미뉴에트'
- 카롤리 세레나데 제5번
- 영국민요 푸른 옷소매
- 슈베르트 세레나데
- 소르 로만자
-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김희숙



이성우

PLACE

# 반죽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974년 종로의 한 복판에서 시작된 반죽은 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1998년 'Tea for two'를 거쳐 2013년 현재 공연, 전시, 파티, 테마 카페 등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소화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반죽'로 이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ROFILE

### 주연선 (Cello)

서울시향 수석 첼리스트 주연선은 서울예고 수석 입학 후 재학 중 도미하여 커티스 음대에서 학사학, 라이스 음대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캔자스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하였다. 2008년 서울시향 입단 당시 정명훈 상임지휘자 취임 후 3년 이상 공식으로 남아 있던 첼로 파트의 수석 연주자로 선발되어 화제를 모았다. 주 트리오, 트리오 필리아 멤버로 활약 및 한예종과 예원학교, 서울예고 등에 출강 중이다.

### 문정재 (Piano)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볼로냐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프란츠 슈베르트 콩쿠르 1위 등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피아니스트 문정재는 예후디 메뉴힌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코리안심포니, 부천시향, 원주시향 등과 협연하였고,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강사 등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PROGRAM

차이콥스키 **로맨스, 작품 51 - 제5번**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 작품 40**  
글라주노프 **엘레지, 작품 17**  
프로코피에프 **첼로 소나타 C장조, 작품 119**



주연선



문정재

# 북촌로 11길 58

서울시  
종로구 회화동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악과 응봉을 잇는 산줄기에 북촌이 있습니다. 늘어진 한옥 줄기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에 더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공간, 북촌로 11길 58번지는 더도 덜도 말고 그런 곳이었으면 합니다.

### 윤은자 (거문고)

서울국악예고, 한양대 음대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수학 중인 윤은자는 금율악회 지도위원, 앙상블 거문 동인, 한국거문고앙상블 동인, 국예풍류회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에는 25일간 40여 회의 아시아 예능 페스티벌 일본 순회공연을 마치고 2005년을 빛낸 국악인으로 선정되었으며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제2회 아시아교류음악회에 출연하였다. 현재 성남시립국악단 거문고 수석을 맡고 있다.

### 강대현 (북) 성남시립국악단 단원

### 김유정 (거문고) 성남시립국악단 단원

### 권중연 (거문고) 중앙대학교 예술대 관현악과

### 정효진 (거문고) 정동극장 예술단원 비상임

### 거문고 산조 (신래동류)

윤은자(거문고), 강대현(북)

### 춘설

윤은자, 김유정(거문고), 강대현(장구)

### 출강

윤은자, 권중연, 정효진(거문고)

### 푸른잉어

윤은자(거문고), 강대현(장구)



윤은자

PLACE

# 세상에서 제일 작은 한평극장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한평극장은 국내 최초의 실험예술 전문 극장으로 흥대 씨어터제로를 모태로 하여 한 사람이 팔과 다리를 벌리고 편안히 누울 수 있는 넓이를 의미하는 인간 중심적 단위이자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공간들의 최소단위인 한 평을 모티브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일상과 예술, 예술가와 일반인, 순수와 현실을 보다 근접한 거리에서 마주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의 순수한 본질에 한걸음 다가감과 더불어 관객과의 내면 깊숙한 예술적 공감을 이끌어 내며, 이를 통하여 관객 스스로가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극장입니다.

PROFILE

**차혜리 (Toy Piano)**  
2008년, 우연한 기회로 건반 장난감 악기에 매료되어 2009년 4월 유튜브 인터넷 심포니 오케스트라 매쉬업 영상에 멜로디언 연주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토이 피아노 연주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흥대, 문래동, 상수역 인근에서 카페 오픈 마이크 무대 활동과 2013년 상반기 한강 거리 공연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6월 중순 맨하탄에서 열리는 2013 Make Music New York Festival에서 작곡가 Alexa Dexa의 토이피아노 퍼포먼스 작품인 Spottins on Safari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민정 (Toy Piano)**  
계원예고, 경희대 기악과, 에센 국립음대,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김포근 (Toy Piano)**  
선화예고, 한양대 졸업, 현재 포근한 바닥 안무가, 이수옥 싱크로마스터즈 팀 소속, 선화예술학교 작곡실기 강사로 활동 중이다.



차혜리                      박민정                      김포근

PROGRAM

- J.Cage      **4:33**
- J.Cage      **Suite for Toy Piano**
- 이혜경      **Dream Play**
- K.Essl      **Kalimba**
- T.Perich    **qsqsqsqsqqqqqqq**
- 신지수      **Dee**
- Y.Tiersen   **Priere n 3**
- S.Joplin     **영화 <Sting> OST 중 'The Entertainer'**
- J.Dassin    **Les Champs Elysees**
- C.Garde    **영화 <여인의 향기> OST 중 'Por una Caveza'**
- L.Anderson **The Typewriter Song**

# 아틀리에 플라노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눈길을 주면 실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됩니다.”  
아틀리에 플라노르는 문래동에 위치한 50평 규모의 아틀리에입니다. 복합 공간으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 전반의 행위들과 다양한 주제의 파티와 상영회, 공연, 소모임 등을 주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주변 창작가 및 동료와의 연결, 연쇄반응, 협업, 뜻밖의 자극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며 나눌 준비가 되어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콰르텟 그리오 Quartet Griot>**  
콰르텟 그리오는 선화예고, 연세대 음대 동기 4명이 모여 결성한 피아노 4중주 팀이다. Griot는 사전적으로 과거 아프리카에서 민족의 구비설화를 이야기나 노래로 들려주던 사람을 의미한다. 콰르텟 그리오 연주자 모두는 음악의 전승자가 되어 음악의 역사와 문화, 더 나아가 작곡가의 의도와 음악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해주려 한다.

**김유리 (Violin)**  
연세대, 인디애나 음대(석사), 보스턴 음대(박사) 졸업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 중

**송근영 (Viola)**  
일리노이 주립대 졸업. 동아방송예술대 음향제작과 졸업 후 현재 레코딩 엔지니어로 활동 중

**정지은 (Cello)**  
연세대와 동대학원 졸업. 현재 인천시향 상임단원

**김재성 (Piano)**  
연세대, 클리블랜드 음대 석사과정 졸업. 현재 동대학 박사과정 중

- 쇼팽      **왈츠 제2번 c#단조, 작품 64**
- 포레      **시칠리안느, 작품 78**
- 쇼팽      **녹턴 제2번 c#단조, 유작**
- 말러      **피아노 4중주 a단조**
- 피아졸라 **피아노 4중주를 위한**
-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콰르텟 그리오

PLACE

# ART.C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아트씨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카페, 팝업갤러리,  
해외 아트페어, 신사동  
프리마켓, 하우스콘서트,  
기업런칭 및 이벤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씨는 사람들이  
00씨라고 자신을  
명명하듯이,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명명하는  
것입니다.

PROFILE

### 찰리정 (Guitar)

오랜 시간 미국 본토에서의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2008년 첫 앨범 <Upside down> 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을 시작하였다. 재즈와 블루스 음악을 중심으로  
일렉트릭 블루스, 가스펠 R&B, 어쿠스틱 재즈사운드 등  
다양한 장르를 완벽히 소화하며 평단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2012년 3월에 출시한 <Goodbye McCadden>을  
통하여 블루스와 퓨전재즈를 바탕으로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 도승은 (Vocal)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학과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김건모, 조규찬, 박효신, 박정현, 김조한,  
거미, 정엽, 나원주 등의 레코딩 및 공연에 세션으로  
참여하였다. EBS Space 공감 '홍혜선 재즈 콰이어'편,  
'강효선'편, '류복성'편에 출연하였고, 2008년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실험정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대구예술대 실용음악과, 김포대 공연예술과에 출강하고  
있다.



찰리정



도승은

PROGRAM

### 숲길

- In a sentimental mood
- Black bird
- Honeysuckle rose
- Beautiful love
- The water is wide
- Blues
- Human nature
- Bridge over troubled water

# 영등포문화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999년 8월에 개원한  
영등포문화원은 영등포  
지역민의 특색 있는 문화  
행사 개최와 더불어  
82명의 강사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충족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생활문화 및  
평생교육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성



허정림

### 이규성 (Baritone)

서울대 음대,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하였고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한국 등에서  
<피가로의 결혼> 등 다수의 오페라에 출연하였다.

### 허정림 (Soprano)

이화여대 음대 성악과 및 동대학원, 폴란드 국립 쇼팽  
음악원을 졸업했고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노르마> 등  
다수의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 진성은 (Hang Drum)

조용필 40주년 기념콘서트 드럼 테크니션, 이한철과  
슈퍼스타 라이브 세션, 조운성, 박주원 등의 다양한  
음악가의 세션으로 활동 중이다.

### 이선영 (Piano)

세종대 예술대학, 성신여대 대학원 반주학과를 졸업한 후  
아가페 미션 코랄, 한수원 합창단 등의 반주자로  
활동 중이며 협성대에 출강 중이다.

### 허재범 (Guitar)

기타리스트, 작곡가 겸 앨범 프로듀서로, 어쿠스틱  
밴드 '소풍', 프로젝트 밴드 '마산상화', '지구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진성은



이선영



허재범

### 뉴튼

- Amazing Grace
- 장일남 비록
- 카푸아 오 나의 태양
- 발페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어요
- 가르델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날
- 폴 매카트니 Yesterday
-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
-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야! 꿈속에 살고 싶어'
- 진성은 I. 명상 II. 실크로드 III. 우주
- 홀드리지 영원한 사랑
- 러블랜드 You raise me up

PLACE

#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창조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고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문화시설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문화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음악을 매개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원데이 페스티벌>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주고, 가족들에게는 음악을 통한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PROFILE

### <홍경섭 재즈 트리오>

#### 홍경섭 (Double Bass)

네덜란드 아센 재즈 페스티벌, 독일 브레멘 재즈 클럽 투어 등에 참여하였으며 부산문화재단, 김재문예회관, 박창수의 하우스콘서트 등 국내 유수의 공연장 및 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송실대, 추계예대, 동아대, 동의대학원 실용음악과에 출강하고 있다.

#### 이정하 (Piano)

2011년과 2012년 New York Comes to Groningen Top Ensemble 멤버로 활동했으며, 신영희 60주년 공연, 아센 재즈 페스티벌, 클럽 아누스 등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은 밴드 세션으로 활동 및 이정하 트리오 앨범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서울예술대에 출강한다.

#### 조재용 (Drum)

김현철의 수아레콘서트(성남아트센터), KBS 국악한마당, LIG Art Hall 사운드 뷔페, Adachi Kumi & Black Candy 내한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타리스트 하타슈지 4집 <From The East Garden> 등의 앨범 녹음에도 참여하였다.

PROGRAM

#### 홍경섭

Chucho Valdes

Jerome Kern, 홍경섭 편곡

홍경섭, 이지연

#### Not Yet

Mambo Influenciado

All the things you are

Light House Behind

그 외 즉흥 선곡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홍경섭



이정하



조재용

# 요기가 표현갤러리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요기가 표현갤러리'는 2004년부터 장르, 형식, 레벨, 국적 불문의 작업을 지향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된 개인 및 그룹의 정체 되지 않은 순수한 실험성 짙은 다방면의 아티스트들은 운영비의 분담과 공간 운영을 모두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내부와 외부 예술가가 서로 교류하며 공연, 연습, 촬영, 실험, 워크샵 등 자체 기획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실험, 즉흥 음악 발표회 '불가사리'를 통해 다양한 표현 방식의 융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사기획제안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강태환 (Alto Saxophone)

심오한 영(靈)의 바람소리를 닮은 연주라는 평을 듣는 알토 색소포니스트 강태환은 1987년 프리뮤직을 연주하는 강태환 트리오를 결성하여,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 영국, 호주, 홍콩, 러시아 등 활발한 해외 연주를 해왔으며 1987년 독일 메르스 재즈페스티벌에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초대 받아 연주하였다. 1994년 호주 오페라를 연주, 2002년 아비뇽음악제(프랑스)와 요코하마 재즈페스티벌 참여 등에 초대받으며 세계 최고의 프리뮤직 연주자로 손꼽힌다.



강태환

본 공연은 즉흥 연주로 진행됩니다.

PLACE

# 올하우스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총 3번의 이사를 거친 하우스콘서트의 4번째 공간. 레코딩 스튜디오인 올하우스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박창수의 하우스콘서트를 위한 공연장으로 변신하곤 합니다. 자연스럽게 따뜻한 소리가 있는 곳, 이곳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집'입니다.

PROFILE

### 김유미 (Violin)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줄리어드 음악원 대학원 과정을 졸업했다. 서울시향, 인천시향, 서울바로크합주단, 코리안심포니 등과 협연했으며 바로크합주단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연주와 음반 작업에 참여했고, 1993년부터 동덕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음악계 중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노인경 (Cello)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원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서울시향 및 서울대 음대 교향악단과 협연, 조선일보사 주최 신인음악회, 금호갤러리 초청 독주회 등에서 다양한 연주 경험을 쌓았다. 현재 상명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바로크합주단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 나정혜 (Piano)

피바디 음대 및 동대학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성남시향, 대구시향 등과 협연하였으며 교향악축제, 실내악 축제, 쇼팽 피아노 전곡 기획시리즈 등 다양한 무대에 올랐다. 현재 서울대, 예원, 예고를 출강하고 있으며 KT 챔버 앙상블, 서울바로크합주단, 윤이상 앙상블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PROGRAM

차이콥스키 피아노 3중주 a단조, 작품 50  
피아졸라 피아노 3중주를 위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김유미



노인경



라정혜

# 흥대 걷고싶은거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 <프리포먼스 Freeformance>

프리포먼스는 음악을 전공하는 20대 연주자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연을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것들을 공연으로, 특히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포먼스의 공연은 공연장뿐만 아니라 지하철, 거리, 공원 등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생겨납니다. 삶의 한 부분에서 우리는 예술가들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포먼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OST 중 Intro 발췌  
아일랜드 민요 'Danny Boy'  
- 플래시몹 (80 Vocals)

신고 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34명, 생존자 58명  
이들의 평균나이 87.2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2013년 한국인의 여성 기대수명 평균 84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이들의 고귀한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중들의 역사적인 인식들이 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그리고  
우리 역사를 기억 할 수 있을까?  
삶의 한 공간에서 우리의 지난 흔적을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80인의 외침  
우리에게겐 역사가 있다.

PLACE

## 과천시민회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과천시민회관은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끊임없이 무대에 올림으로써 척박한 공연예술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예술의 중심축으로 자리하여 공연장으로서 역할과 이미지를 만들고자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PROFILE

### <2 BASS>

2006년 독일 슈페르거 더블 베이스 콩쿠르에서 만 16세의 나이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었던 성민제의 뒤를 이어 동생 성미경 역시 2010년 같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 베이스 명가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성민제, 성미경 남매는 2 BASS 활동을 통해 더블 베이스의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악기의 매력을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 성민제 (Double Bass)

한예종과 뮌헨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슈페르거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 최연소 우승에 이어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에서 연속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008년 독일 도이치 그라모폰(DG) 레이블로 첫 번째 음반을 발매한 바 있다.

### 성미경 (Double Bass)

한예종을 졸업했다. 성민제에 이어 슈페르거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에서 당당히 우승하였으나 청중상, 협연자상, 특별상 등 총 5개의 상을 석권하였다.

PROGRAM

- J.S.바흐 프렐류드 모음곡, 제1번
- 베토벤 비창 소나타 - 2악장
- 쇼팽 녹턴, 작품 9
- 슈페르거 2대의 베이스를 위한 듀오
- 알렉산드르프 아리아
-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 심현정 The Last Waltz (영화 '올드보이' OST 중)
- 몽티 차르다쉬



2 BASS

## 계양문화회관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 기슭에 자리 잡은 계양문화회관은 넓고 아늑한 무대로 관객에게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3년 7월 12일 19시 30분에 하우스콘서트의 '원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7월의 여름날 밤에 울림이 있는 격조 높은 공연으로 잠시나마 행복한 마음의 여행을 떠나 보시기 바랍니다.

### <솔리스트 The Solists>

솔리스트는 1992년 결성하여 창단 20주년을 지낸 한국 최초의 아카펠라그룹으로 모테트, 마드리갈, 예술가곡, 심포니 등의 클래식 레퍼토리와 국악, 가요, 동요, 팝송,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국 순회공연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13개국에서의 해외공연 등 400여 회의 단독콘서트와 1800여 회의 초청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최고의 아카펠라 그룹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시도해 온 국악 아카펠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 Member

- 김재우 (Tenor, Leader), 이성원 (Tenor),
- 윤덕현 (Tenor), 김선동 (Baritone), 이재호 (Bass),
- 이상익 (Bass)



솔리스트

### Obladi Oblada

- Hallo, Mr. Mozart.
- 군밤타령
- 통영 개타령
- Stand by me
- Autumn Leaves
-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 아리랑 연곡
- Sing Along
- 섬집 아기
- 임진강

PLACE

## 광탄성당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박달산 자락에 위치한 광탄성당은 2009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에 전진성당으로부터 독립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임신부인 김도현 요셉 신부님을 비롯한 400여명의 신자들과 후원자들의 마음을 모아 2년여만인 2012년 4월 15일에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광탄성당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의 한 가족으로서 믿음의 바탕 위에 사랑을 나누는, 신자 수 392명, 주일 미사 참여 신자 수 150여 명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였습니다.

PROFILE

### <서울기타콰르텟>

서울기타콰르텟은 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기타 4중주단으로서 1999년 결성하여 이래 전국에서 매년 30여 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다. 기타를 위해 작곡된 곡들은 물론 비발디의 사계, 피아졸라의 사계, 영화 음악, 재즈, 가스펠 등 다양한 음악을 편곡하여 연주함으로써 기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의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3년 일본기타연맹과 합주연맹에서 주최한 제 15회 일본기타중주콩쿠르에서 1위를 입상하며 '각 연주자의 개성과 뛰어난 앙상블을 가진 콰르텟'이라는 평을 받았다. 2005년에 첫 앨범 <Les 4 points cardinaux : 4개의 방위>(서울음반)가 발매되었고, 2008년 피아졸라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앨범(아스트로 피아졸라)을 발매하였고, 그간의 활동과 연주력, 기획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인정받았다.

### 음악감독 : 김인주

기타 : 김재학, 한형일, 이명선, 윤원준



서울기타콰르텟

PROGRAM

헨델 시바 여왕의 도착  
텔레만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 1악장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비제 카르멘 모음곡  
한형일 **Nada / Happy Bossa Nova / Recurring life / Flying**  
김인주(편곡) 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화 <라스트콘서트> 중 '스텔라에게 바치는 노래'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인생의 회전목마'

## 국립암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립암센터는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암 발생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0년도에 제정된 국립암센터법(법률 제6149호)에 따라 설립된 암 연구·진료·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 인력 및 최첨단 연구·진료 장비·시설로 신개념의 연구, 최상의 진료, 세계적 암전문가 양성 및 효율적 국가암관리사업 지원을 통하여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효주 (Piano)

유럽을 무대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효주는 서울예고 재학 중 도불하여 프랑스 국립고등음악원 피아노과, 실내악 전문사 과정, 에콜 노르말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거쳐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수학 중이다. 미국 신시내티 국제 콩쿠르 우승, 2007 프랑스 에피날 국제 콩쿠르 2위, 2010 제네바 국제 콩쿠르 2위 등을 연이어 달성하며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그녀는 2011 교향악축제(대전시향과 협연), 2012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신년음악회,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국내외의 다양한 무대에 초청되어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효주

슈만 헌정  
쇼팽 스케르초 제2번 b♭단조, 작품 31  
슈만 다비드 동맹 무곡, 작품 6  
라벨 라발스

PLACE

## 김정욱의 집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저희 집을 이웃들과  
오디오 감상을 목적으로  
꾸며봤습니다.  
주말이면 이웃들과 마음껏  
음악을 감상하며 삶의  
고마움을 느끼는 이곳에서,  
오디오 감상을 넘어 실제  
공연을 관람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PROFILE

### 배장흠 (Guitar)

2005, 2010, 2012년 청와대 초청 연주회, 2013년 워싱턴 워너 씨어터에서 열린 세계평화 페스티벌 '아리랑' 초청 연주, <8월의 크리스마스>, <정사>,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음악을 작곡, 편곡 및 연주하였으며 아나체크 현악4중주단, 수원시향, 대구시향 등과 협연한 바 있다. 현재 한국기타협회 이사 및 멀티앙상블 MU 음악감독, 블라디보스톡 국제기타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 강운영 (Violin)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에센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석사를 취득한 강운영은 영산아트홀, 예술의전당, 부암아트홀 등에서 독주회와 초청 앙상블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서울모던앙상블 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함과 동시에 선화예중, 예고, 인천예고, 계원예중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배장흠

강운영

PROGRAM

마차오 파코카  
지스몬티 물과 포도주  
몽티 차르다쉬  
마이어스 영화 <디어헌터> 중 '카바티나'  
만치니 해바라기  
지르말 바덴 재즈 모음곡 - 제1번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 늘푸름교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늘푸름 교회는 가톨릭,  
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회이며, 청소년  
쉼터 아이들이 단기, 중장기,  
자립관에서 생활하며  
일주일에 한번 모두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 받는  
아이들, 진심으로 보살펴  
주는 선생님이 계셨다면  
학업을 지속할 수도 있었던  
아이들, 좋은 부모에게  
성장했다면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도  
있었던 아이들이지만 현재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원데이 페스티벌  
이라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 <DUOfor>

좋은 음악적 파장이 만들어 내는 기쁨을 가지고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기타와 피아노의 대화

### 김세운 (Piano)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에서 수학했다. 제주도에 정착하여 작은 중산간 마을에서 문화예술공간 카페세바를 열고 하우스콘서트 형식의 재즈, 클래식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유재하 경연대회 기념음반, 하나음악 컴필레이션 앨범 <Newface>, <바다>, 첫 트리오 앨범 <Song of water>를 내는 등 꾸준한 앨범활동과 더불어 현재, the trio SEA, DUOfor, 이종혁 재즈밴드 등으로 활동하며 한라대에 출강 중이다.

### 김경범 (Guitar)

제주도 출신 기타리스트 김경범은 EDlama(이디라마) 1집과 2집 앨범작업을 시작으로 밴드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음악제작에 관심을 갖고 인디뮤지션들과 함께 여러 작업을 시도했다.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악이 던져주는 파장을 중심으로 서로 대화하며 나누는,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생각하며 DUOfor라는 듀오 연주를 하고 있다.

### - 은빛 물고기들의 춤 -

Dance of fishes (물고기들의 춤)  
Salt-water ballad (바다시)  
10 years ago (10년 전)  
A windy and fine day (바람불어 좋은 날)  
Father's confessor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Fafa-papa (파파-빠빠)  
On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  
My Jesus (나의 예수님)  
Danc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춤을)



DUO for

PLACE

# 전위예술가 무세중의 집 - 소도(蘇塗)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도(蘇塗)는 고대로부터  
하늘 곳을 지내는 하늘이  
점지한 신성한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무세중은 소도를 소통의  
교류 장소로 인식하여  
삼신이 강림해 계신  
삼각산(북한산)을 앞  
배경으로 하늘의 빛 내림을  
받고 그 기운을 사람들에  
전하며, 그 반대로 우리의  
염원을 하늘에 바치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는 봄, 가을  
예술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PROFILE

### 무세중 (전위예술)

우리나라 굿예술, 행동예술의 선두주자인 무세중은 모든  
탈춤을 추는 유일한 춤꾼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  
등지에서도 유럽 각국의 연기자들과 초현실주의 전위  
실험의 작품들을 공연하였다. 그의 공연 미학은 곳에서  
시작되어 전위에서 마감되며 전위극의 포용성은 달래고  
얼싸안아 한민족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지킬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저력이다. 현재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현역으로서 출연하고 있다.

### 출연 :

**무세중, 무나미, 유준식, 장성진, 조남현, 김선미(통미  
분장예술 연구소), 극단 허리**

### 즉흥연주팀 :

**신지수 (거문고, 토이피아노)** 서울대 음대,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음 국립음대, 사우스햄턴대학을 졸업.  
서울대학교 출강 중  
**김성윤 (첼로)** 부산예고, 경희대를 졸업. 즉흥연주에 능함.  
**송향숙 (피아노)** 서울대, 리용 국립고등음악원 졸업.  
수원대, 상명대, 추계예대, 성신여대 출강 중  
**Luis Garcia (랩탑)** 텍사스 A&M 대학을 졸업. 현재,  
청운대 영어 강사이자 패션브랜드 BeSlo의 레지던스  
아티스트로 활동 중

PROGRAM

무세중 작·연출 <꼬락서니들의 종말>

본 공연은 퍼포먼스와 즉흥 연주로 진행됩니다.



무세중

# 박상일의 집

경기도  
양평군 대심리

신선하고 맑은 공기와  
더불어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하우스콘서트의 월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여름날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멋진 저녁이  
기대됩니다!

### 구윤정 (Piano)

한예중 재학 중 도독하여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 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서울시향,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으며 베를린 스타인웨이하우스  
초청 독주회 및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전남대, 경희대, 목원대에 출강 중이다.

### 황소원 (Piano)

서울예고, 한예중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전문연주자 학위를 취득했다. 스페인 마리아 카날스 국제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현재  
경희대, 단국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세대,  
서울예고 등에 출강 중이다.

- 라벨 어미 거위
- 라벨 밤의 가스파르
- 라벨 쿠프랭의 무덤
- 라벨 라 발스



구윤정



황소원

PLACE

# 보명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125-5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보명사는 대중포교를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는 비구니 스님 도량입니다. 소박하고 정갈한 스님이 기도하시는 맑고 깨끗한 이곳 보명사에서 원데이 페스티벌을 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듣는 해금 연주로 편안한 여름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PROFILE

### 신날새 (해금)

고운 소리 해금 연주자로 정평이 나있는 젊은 해금연주자 신날새는 국악중, 국악고, 한예종을 졸업하고 2003년 한국음악협회 주최 콩쿠르 해금 부문 1위를 비롯한 다양한 콩쿠르에서 수 차례 수상 하였으며, 2006년 세종문화회관 가을 축제 콘서트, 2007년 일본 후쿠오카 가을 페스티벌 초청연주회, 2009년 청와대 국민 만찬 초청 연주 등 다양한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단아하고 아름다운 해금 소리를 전파하고 있다.

### 정겨울 (Piano)

경원대를 졸업하고, 다수의 어린이 에듀 콘서트와 어린이 뮤지컬, CJ 뮤지컬 쇼케이스 <선녀>, 창작 팩토리 <러브포엠>에서 피아노 연주를 맡은 바 있다.



신날새



정겨울

PROGRAM

### Tiger in the night

Song from a secret garden  
시네마천국 OST 중 LOVE Theme

### What a wonderful world

### Cavatina

당신은 소중한 사람 (노르웨이 민요)

### 필레꽃

엄마야 누나야

햇살이 다시 내게

### 화풍병

몽계구름

# 약천사

(포도나무예술조합)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산, 파주권을 대표해 이번 원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포도나무의 세 번째 하우스콘서트는 파주 심학산에 위치한 약천사에서 열립니다. 심학산 지장보전을 무대로 펼쳐질 이번 산사음악회에서 국악 공연을 통해 우리 소리의 정취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포도나무예술조합은 수준 높은 공연을 가까이서 부담 없이 보자는 취지로 11명의 음악 애호가들이 의기투합해 비영리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송정아 (가야금)

국립국악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서울대 음대와 동대학원의 국악과를 수석 입학 및 졸업한 송정아는 제22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대상, 제23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국립국악학교 강사이자 소리공감·느루, 가야금 앙상블 '라온-G'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 정겨운 (해금)

서울대 음대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상임 단원을 역임한 정겨운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전수자이다.

### 정재우 (대금)

제1회 담양 죽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대금 연주자 정재우는 현재 서울대 음대 국악과에 재학 중이다.

### 최영진 (타악)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이수자이며, 월드뮤직그룹 이스터녹스의 음악감독인 최영진은 한양대 음대 국악과 석사를 수료하고 현재 국립국악학교 강사이다.

### 25현 가야금 변주곡 '도라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 Reminiscence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서용석류 해금 산조 중 중중모리-자진모리

대금 독주곡 '청성곡'

가야금 병창 '사랑가'

진도 아리랑

\* 청중과의 호흡 - 우리 민요 배워보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울산아가씨



송정아



정겨운



정재우



최영진

PLACE

## 양지성당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천주교 수원교구  
용인대리구에 소속된  
양지성당은 한국인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의  
성장지이자 활동지로  
유명하며, 용인시 지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주교 성당입니다.

PROFILE

### <이지연의 12인조 재즈오케스트라>

유럽에서 8년간의 유학생생활과 연주활동 후 1집 앨범 'Bright Green Almost White'의 한국 발매와 동시에 한국에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지연의 12인조 재즈오케스트라이다. 혼 세션 4명, 스트링 세션 4명 그리고 리듬섹션 4명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멜로디는 그녀의 오리지널 컴포지션이 제시하는 모던하고 감성적인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며 한층 깊고 부드러운 선율로 전해질 것이다.

### 이지연 (Piano)

HKU Utrecht School of Arts 재즈피아노 석사, Hanze University Prins claus conservatory 재즈피아노 학사 졸업. 현재 송실대, 한국종합예술원, 동아대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김성수 (Double Bass), 오종대 (Drum),  
박지훈 (Guitar), 정중화 (Trombone),  
신영하 (Trumpet), 김성준 (Saxophone),  
여현우 (Saxophone), 주소영 (Violin), 장수현 (Violin),  
박지영 (Cello), 김다예 (Cello)

PROGRAM

This Place, Meaning You  
I Remember You  
Bright Green Almost White  
Flame Dance  
Goodbye Porcupine  
Falling Grace  
Driving High  
Painting On The Moon  
A Lazy Cat



이지연의 12인조 재즈오케스트라

리코디스트

## 염은초의 집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7월 12일 하우스콘서트의 원데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리코더 연주자 염은초네 용인집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40여분 거리에 위치한 용인 양지에 위치하고 있다. 잔디가 깔린 정원에는 강아지가 뛰어 놀고 있고, 1,2 층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층 목조 주택 구조로 리코더의 울림 소리가 좋다. 리코더를 불면 주변에서 새가 날아와 리코더 소리와 하나가 되는 곳, 그곳에서 열리는 하우스 콘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 염은초 (Recorder)

올해 3월 독일 니더 작센 국제 리코더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리코더 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리코디스트 염은초는 한예중 예비학교, 캔터베리 대학 예비학교를 거쳐 16세 최연소 나이로 스위스 취리히 음대에 입학, 만 19세에 학사를 졸업하였고, 현재 스위스 바젤 음대 석사과정에서 수학 중이다. 국내외 유명 콩쿠르에서 수 차례 입상하며 가능성을 인정 받았으며,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염은초

아름 반 아이크 <리코더의 기쁨의 정원> 중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할까?'

코렐리

염은초

안데르센

라 폴리아

즉흥연주 - 여름

2대의 알토리코더를 연주하는 1명의 리코더 연주자를 위한 곡 '끝'

PLACE

# 정미령의 집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꽃과 나무를 하나, 돌 직접  
사서 심고 가꾼 마당과 그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에 충실한, 소박한  
거실을 사랑합니다.  
그곳에서 천사 같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행복하게  
분주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PROFILE

### <Ensemble Bar-Pool>

양상블 Bar-Pool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중요하듯,  
예술인으로서 어떠한 공연이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주하자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이러한 의미들을 음악으로  
채우며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 김성은 (Soprano)

서울대 음대, 파리국립고등음악원, 미국 피바디 음악원을  
졸업. 현재 한예중, 강원대 등에 출강 중

#### 여수정 (Flute)

이화여대 음대, 로테르담 국립 음악원을 졸업. 현재 대명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 가톨릭대 출강 중

#### 이재욱 (Guitar)

스페인 그라나다 음악원, 마드리드 왕립 음악원 졸업.  
프랑스 문화원 초청 독주회 등 다수의 독주회 개최

PROGRAM

- 헨델 소프라노, 플루트, 기타를 위한 2개의 노래
- 빌라 로보스 소프라노와 기타를 위한  
브라질 풍의 바흐 제5번 - 1악장
- 이베르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파라볼레스
- 아몬 죽음
- 비숍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자! 여기 다정한 종달새’



Ensemble Bar-Pool

PLACE

## 당진문예의전당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당! 장 가고 싶은 그곳,  
당진문예의전당  
진! 짜 가고 싶은 공연,  
더하우스콘서트  
7월 12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함께 하세요.

PROFILE

### 이경선 (Violin)

힘있고 격조 있는 연주로 세계 무대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은 한국인 최초로 워싱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래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바이올리니스트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에서 김남윤 교수를 사사하였고, 졸업 후 도미하여 피바디 콘서바토리,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였다. 2001년부터는 미국 오벌린 음대 조교수로, 2006년부터는 휴스턴 음대의 부교수로, 2009년부터 서울대 음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전 실내악 축제 음악감독, 화음 챔버의 리더로 활동 중이다.

### 조수현 (Piano)

피아니스트 조수현은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졸업 후 도미하여 인디애나 음대, 미네소타 주립대를 졸업하였다. 2008년 귀국 후 세종체임버홀, 금호아트홀 등에서 독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창원시향, 마산시향, 중국국립천진교향악단 등과 협연하였다. 현재 경남대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PROGRAM

- 라벨 **치간느**
- 라벨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장조**
- 리스트 **페트라르카 소네토 제104번**
-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B♭장조, 작품 23, 제2번**
- 김한기 **고향의 봄**
- 생상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작품 28**



이경선



조수현

## 음성문화예술회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충북에서 손꼽힐 만한 공연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음성문화예술회관!! 7월 12일, 'One Day Festival'의 조용한 감동이 음성에서 시작되어 충북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관객들과 아름다운 음악에 꼭 빠져 보겠습니다. 참!!!, 관객 여러분~ 음악의 감동에 빠지기 전에 우리 아티스트들의 외모에 빠져 눈으로만 음악을 즐기시면 아니아니 아니네요!!

### <신현필 & NU-STREAM Band>

#### 신현필 (Saxophone)

서영도 Electric Ensemble, Keith Wyatt and M.I Faculty Band,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뮤지컬 <라카지> 편곡을 맡았고, 자라섬 재즈 컴피티션에서 The Best Soloist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 전용준 (Piano, Synthesizer)

산울림 트리뷰트 앨범, 가수 임재범, 심수봉, 김조한 등의 라이브 세션으로 참여하였다. Palm, Evans, Watercock, Blue moon, JZ 등의 클럽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신동하 (Bass)

지산락페스티벌 루시드폴 & 조윤성 Semi-Symphonic Orchestra,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 루시드폴 밴드 등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재즈피플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었다.

#### 김대호 (Drum)

밴드 바닐라 웨이크로 활동하며, 가수 권진원 '나무' 콘서트 등의 세션으로 참여하였다. 뮤지컬 <The Convent Journey>, 뮤지컬 <내사랑 내곁에>, 베이시스트 이성찬 <James Changes> 등의 공연에 참여한 바 있다.

신현필

Eugene McDaniels  
Stevie Wonder

신현필

Dolphin Groove

Josh  
Cali  
Serenade for You  
Feel Like Making Love  
I can't Help it  
October 30th. 2011'  
The Night of Hongdae st.  
Now's the time



신현필



전용준



신동하



김대호

PLACE

## 청양문화예술회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사계절이 아름다운 칠갑산  
아래로 지천이 흐르는  
고추와 구기자외 고장  
청정지역 청양입니다.  
원데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7월 12일,  
이곳 청양에 오셔서  
불로장생 구기자와  
매우면서도 입맛 당기는  
명품 청양고추 등  
청양의 음식을 맛보시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PROFILE

### <박윤우 재즈 트리오>

#### 박윤우 (Guitar)

어쿠스틱 재즈, 비밥, 모던, 프리, 브라질리안 뮤직, 탱고, 클래식까지 폭넓은 장르를 소화해 내는 몇 안 되는 기타리스트이다. 1집 <De Jaren>, 2집 <The Songs Of My Guitar>를 발매하였고, 이부영 밴드 등 다양한 그룹에서 활동 중이며 2012년 잉거 마리 내한 공연 시 유일하게 국내 뮤지션으로 참가하였다. 현재 서울예대, 동덕여대 등에 출강 중이다.

#### 오정택 (Double Bass)

트리오 젠들레인 1집, 웅산 3, 4집, 소나기 프로젝트 등 수많은 앨범의 레코딩 세션에 참여하며 입지를 굳혀왔다. 자라섬 국제재즈 페스티벌, EBS 스페이스, 바비 맥퍼린 내한공연 등 국내외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해오고 있다. 현재 재능대 실용음악과, 평택대 실용음악과에 출강 중이다.

#### 이도현 (Drum)

김덕수 난장밴드, 이판근 프로젝트, 김광민, 나윤선, 정말로, 손성제, 조윤성, 코바나, 전제덕, 원터플레이, 이승환, 윤종신, 유희열, 롤러코스터, 루시드 폴의 레코딩과 라이브 세션에 참여하였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음대에서 유학을 하였고 예원 예대 등 실용음악과에 출강 중이다.

PROGRAM

- Stanley Myers **Cavatina**
- William Walton **Alla Cubana**
- 박윤우 **Forest**
- Cannot go back there**
- Cole Porter **Night & Day**
- Duke Ellington **Prelude to a Kiss**
- 박윤우 **Hayim**
- 나룻길 사이로**
- Cole Porter **Memories of you**
- Get out of time**
- Francisco Tarrega **Recuerdos de la Alhambra**



박윤우트리오

## 깊은산속 응달샘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깊은 산속 응달샘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주에  
위치한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입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꿈이  
많은 사람들의 꿈으로  
자라나 현실이 된 기적의  
공간으로,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곳, 좋은 사람들이  
모여 비우고 채우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 '꿈'이  
시작되고 '꿈너머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숲속 음악회, 작은 음악회,  
춤 공연, 음식 축제, 전시회,  
세미나 등 아름다운 문화  
행사들이 명상과 어우러져  
많은 분들에게 쉼과 회복을  
선물하는 자연 그대로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 이정란 (Cello)

서울대 재학 중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합격한 후, 최고연주자과정과  
실내악전문사과정을 수석 졸업하였고, 2008년에 귀국하여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트리오 제이드,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파리의 모가도르 극장,  
씨떼 드 라 뮤직, 가보홀, 독일의 게반트하우스 등 유럽의  
저명한 홀에서 수 차례 연주한 바 있는 그녀는 특히 베토벤  
첼로 소나타 시리즈 연주와 바흐 무반주 조곡 전곡 연주와  
같은 야심찬 기획 연주에 도전, 현지 청중과 평단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향 첼로 부수석으로 활동하며  
서울대와 연세대에 출강하고 있다.

### 박진우 (Piano)

한예종을 3년 만에 조기 졸업 후 도독하여 데트몰트  
음대에서 KA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한 박진우는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 중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독주 및 협연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올림푸스  
앙상블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 아나체크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동화'**
- 멘델스존 **첼로 소나타 제2번 D장조, 작품 58 - 1악장**
-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중 '나이트클럽 1960'**



이정란

박진우

PLACE

## 능강솃대문화공간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충북 제천 금수산 자락  
청풍호반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솃대테마공간으로  
연중 4~5만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솃대 전문 조각가인  
윤영호 관장과 윤태승  
조형연구실장에 의해  
자연에서 형태를 찾아  
현대적인 예술작품으로  
재구성한 각기 다른 모습의  
“호수대” (희망솃대)  
400여점이 전시 되어  
있고, 100여종이 넘는  
야생화가 연이어 피어나고  
소나무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희망과 치유의  
문화공간입니다.

PROFILE

### <코르다 벨라 스트링 콰르텟 Chorda Bella String Quartet>

#### 김정수 (Violin)

서울대 음대, 독일 쾰른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예술의전당, 금호아트홀 등에서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를 한 바 있으며, 서울오케스트라 악장 및 과천시향 객원악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음챔버앙상블 멤버이며, 목원대 음대 겸임교수이자 숙명여대에 출강 중이다.

#### 박재린 (Violin)

연세대 음대, 독일 쾰른 국립음대를 졸업하였다. 예술의전당, 금호아트홀 등에서 다수의 독주회를 가졌으며, 현재 앙상블 포럼 21, Trio KAN의 멤버 및 목원대 초청 강사로 활동 중이다.

#### 박미애 (Viola)

연세대 음대, 폴란드 국립 소풍 음대를 졸업하였다. 세종대 콘서바토리의 강사, 연세 산포니에타, KT 챔버 오케스트라의 수석을 역임하였다.

#### 홍정희 (Cello)

서울대 음대, 미국 University of Redlands 대학원을 졸업했다. 충남교향악단 단원 및 충남대, 공주대 등의 강사를 역임한 후 현재 서울예고, 예원학교에 출강중이다.

PROGRAM

드보르자크 현악4중주 제6번 F장조, 작품 96 '아메리칸'  
드보르자크 유모레스크  
몽티 현악4중주를 위한 '차르다쉬'



김정수



박재린



박미애



홍정희

## 세도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초등학교는 1926년  
개교하여 86회 졸업생  
7056명을 배출한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로,  
백제역사의 도시  
부여군에서도 백마강이  
시작되는 천혜의  
농촌마을입니다. 전교생  
45명이 가족처럼 서로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꿈의  
공간 세도초등학교에서 오늘  
색소폰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한여름 밤의 희망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SNU 색소폰 앙상블

### <SNU 색소폰 앙상블 SNU Saxophone Quartet>

SNU 색소폰 앙상블은 서울대 음대에서 색소폰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4명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청춘 색소폰 앙상블이다. 재즈악기로 인식되어 있는 색소폰을 클래식 사운드로 해석하여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 등 각자 악기 고유의 소리가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앙상블을 지향하고 있다. 찾아가는 정기 음악회, 병원 음악회, 외부 초청 연주 등을 통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주목 받고 있는 앙상블이다.

#### 여요한 (Soprano & Alto Saxophone),

#### 장원진 (Alto Saxophone),

#### 최영현 (Tenor Saxophone),

#### 이승이 (Baritone Saxophone)

#### 피아졸라

#### J.S.바흐

#### 차이콥스키

#### 엔리코 모리코네

#### 만치니

#### 리얼그룹

#### 거쉰

#### 거쉰

#### 리베르탱고

####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 안단테 칸타빌레

#### 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 문 리버

#### 워킹 다운 더 스트리트

#### 오, 레이디 비 굿

#### 썸머 타임

PLACE

## 충북문화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예술과 낭만이 공존하는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인  
충북문화관은 도지사관사로  
쓰였던 곳을 충북의 역사,  
문화, 예술의 향기를  
도민에게 전달하고자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문인들의 삶의  
궤적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의 집과 북 카페는  
일상이 쉼을 얻고 희망이  
꿈꿔지는 마음의 집이고  
다양한 장르의 전시공간인  
숲 속 갤러리와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과 동아리  
활동의 장인 야외공연장은  
도심 속 문화예술  
쉼터입니다.

PROFILE

### <벨루스 콰르텟 Bellus Quartet>

정상의 기량과 조화로운 팀워크로 주목 받고 있는 벨루스 콰르텟은 '매력'이라는 팀 이름처럼 음악의 다양한 색깔을 전하며 청중과 함께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연주를 모토로 삼고 있다. 2011년 예술의전당에서의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Art H콘서트, 기타리스트 안형수와의 콜라보레이션 작업 등을 통해 참신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 고진영 (Violin)

현재 Soliall 오케스트라 악장. 단국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출강

#### 김정현 (Violin)

뉴욕 루체른 뮤직 페스티벌 콩쿠르 우승, 뉴욕 한미문화원 후원예술가

#### 김신희 (Viola)

Soliall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Premiere 앙상블 멤버

#### 송인정 (Cello)

현재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 멤버, 서울대, 단국대, 예원학교, 선화예중, 서울예고 출강

PROGRAM

- 베토벤 현악 4중주 작품 59, 제3번 '라주모프스키'
- 김수진 영화 <하얀거탑> 중 'B Rossette'
- 헨델 울게 하소서
- 이지수 드라마 <봄의 왈츠> 중 'Flying Petals'
- 가르델 영화 <여인의 향기> 중 '포르 우나 카베자(간발의 차이)'



벨루스 콰르텟

## 한솔중학교

세종시  
한솔동

오는 7월 12일, 세종시  
첫마을에 위치한  
한솔중학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하우스콘서트  
원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  
2012년 7월 1일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이 2014년까지  
입주하는 등 2030년  
인구 70만의 세계 20대  
명품도시를 목표로  
비상의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 <김책 재즈 트리오>

#### 김책 (Drum)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에서 음악인류학을 연구했다. 2009년 정재일과 발매한 <The Methodologies>는 제7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재즈연주음반상을 수상, 2012년에는 기타리스트 오정수와의 듀오 음반 <나의 발견>을 발매했다. 현재 대학에서 재즈음악사, 월드뮤직 등을 강의하고 있다.

#### 최광문 (Double Bass)

2007년 뉴욕의 저명한 일간지 데일리 뉴스 기사에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맨해튼과 퀸즈지역의 여러 재즈클럽에서 연주활동을 해왔다. 2012년에 정규 1집과 2집 앨범을 연달아 발매하였고, 2013년 2월 정규 3집 앨범으로 <Sounding Silence, Richard Wagner Songbook>을 발매하였다.

#### 탁경주 (Guitar)

경희대와 미국 디트로이트 Wayne State University 음대에서 수학했다. 미국 뉴욕 Five Towns College 재즈학과 Tony Mottola Award 를 수상한 바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 뉴욕 브루클린의 재즈클럽에서 연주활동을 하였으며 2013년 베이시스트 James Cammack과 듀오 앨범 <Theme from Brooklyn>을 발매하였다.

#### Traditional

- George Gershwin
- Antonio Carlos Jobim
- Billy Strayhorn
- Chick Corea
- Free Improvisation

#### Blues

- I hear a rhapsody
- How insensitive
- Chelsea Bridge
- La Fiesta
- 서울구경



김책



최광문



탁경주

PLACE

## 경남문화예술회관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988년 개관한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서부경남의 수부도시인  
진주에 있습니다.  
남강의 아름다운 경치와  
잘 어우러져 있으며,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예술가들과 도민들의 관심  
속에 연간 12만명이 찾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  
2009년 7월 재개관한  
경남문화예술회관은  
1,564석의 대공연장과  
905㎡의 제1전시실,  
554㎡의 제2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년  
160회의 공연과 70여  
회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기획공연과 도민참여  
예술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예술무대 등으로  
서부경남 문화1번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PROFILE

### <우주히피>

홍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포크록 밴드 우주히피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선율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준다. 2008년 1집 앨범 '우주히피'를 발매하고  
2009년 베이시스트 김충선으로 멤버를 교체, 2010년에는  
드러머 민상용으로 멤버를 교체하였고 '춘천 Play Ground  
Festival'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2011년 2집 앨범 <On  
your side>를 발매하였으며 '2012 프리, 뮤직 페스티벌 -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에도 참여한 바  
있다. 비정기적으로 마이크 없이 공연하는 'nomic' 이라는  
이름으로 우주히피만의 특별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 (Vocal, Guitar), 김충선 (Bass), 민상용 (Drum)



우주히피

PROGRAM

Show me  
On your side  
끝나가는 시절  
신기록  
어찌 그리 예쁜가요  
하루는  
뭔가 있어  
Long goodbye 2  
Rain  
유기농 파프리카  
이제는

## 대구북구 문화예술회관

대구시  
북구 관음동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은  
국내 최고수준의 울림을  
자랑하는 공연장과 새롭게  
리모델링한 문화센터로  
지역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M (Vocal)

파주 헤이리 3rd Summer Modern Rock Festival,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정동문화축제,  
프랑스수교 120주년 기념 '상송' 공연, 하우스콘서트 프리  
뮤직페스티벌,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 Pre Concert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7년에  
라틴음반 <LatinaM>, 2010년 4월 창작곡 음반 <I am  
나M>을 발매하였다.

### 이현주 (Piano)

동덕여대 실용음악과를 졸업했다. 조PD, 거미 등 실력파  
가수들의 레코딩 세션으로 활약했으며 일본 가수 '마이카'의  
싱글 앨범 레코딩 세션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 안원석 (Double B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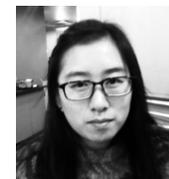
백제예술대 실용음악과를 졸업했다. 2012  
여수오션뮤직페스티벌, 제6회 울산재즈페스티벌에 등에  
참가한 바 있으며 신재창, 정영근 콰르텟, 장현준 등의  
아티스트의 음반 세션으로 활약하고 있다.

### Bésame mucho

Veinte años  
기차는 8시에 떠나네  
Dos gardenias  
Dónde voy  
Luna Tucumana  
Todo cambia  
아말감  
나M Tango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Bella ciao



나M



이현주



안원석

PLACE

## 예주문화예술회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가는 곳마다 일출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자랑스런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  
영덕 대게, 복숭아, 송이 등  
풍부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한 예주문화예술회관은  
눈과 귀, 마음까지 시원하게  
적셔줄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군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 없이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우스콘서트의  
One Day Festival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PROFILE

### <김가온 재즈 트리오>

#### 김가온 (Piano)

서울대 음대에서 작곡을, 버클리 음대와 뉴욕대에서  
재즈를 공부했다. 한국의 우수한 재즈클럽에서 말로밴드,  
박선주밴드 등의 다양한 밴드와 공연하며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으며 <Un/Like the other day>, <Prismatic>의 앨범  
발매와 더불어 2011년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Wednesday  
Jazz'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정영준 (Bass)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 자라섬 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였고  
2012년에는 리더스풀 아티스트로 선정되었다. <Acoustic  
Lounge -The Blue rain>, <모색 - Progression>의 앨범을  
발매하였고, 최우준 블루스 트리오, 말로밴드 등의 앨범에도  
참여하였다. 현재 국제예술대학교 JASS에 출강 중이며,  
백제예술대와 동신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신동진 (Drum)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였으며, 2008년 재즈 피플 잡지에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었다. Fred Hamilton, 배장은 트리오,  
EBS 스페이스 공감 등 여러 공연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2년 Taipei International Jazz Festival에 Kenji Omae  
Quintet 연주로 참여하였다. 현재 장안대, 서울예술대,  
광운대에 출강 중이다.

PROGRAM

Herbie Hancock **Cantaloupe Island**  
George Fragos **I hear a rhapsody**  
Ray Noble **Cherokee**  
김가온 **Like the other day**  
이영훈 **가로수 그늘 아래에 서면**  
Chick Corea **Armando's Rhumba**



김가온



정영준



신동진

##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음악과 외인의  
마리아주(marriage)  
다양한 연주자와 함께  
즐기는 외인과의 만남.  
울주문화예술회관의  
하우스콘서트입니다. 오감이  
행복해지는 하우스콘서트의  
매력에 감사하다며 인사를  
남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석 매진이라는 쾌거를  
이룬! 하우스콘서트 in 울주.  
Shall we enjoy?

### <브라스마켓 Brass Market>

관객과의 높은 교감과 친화력이 장점으로 꼽히는  
매력적인 젊은 금관 앙상블 브라스 마켓은 200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이 수준 높은 금관  
앙상블을 연주를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아십 대의 젊고 패기  
넘치는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서울시청 광장  
연주회, 칸타빌레 콘서트, 2009년 충무아트홀에서의 단독  
콘서트, 2012년 충무아트홀 청소년 실내악 시리즈 등의  
연주회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 나가며 차세대 금관 앙상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나웅준, 은중기 (Trumpet), 최우영 (Horn), 정학균 (Trombone), 김종우 (Tuba)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중 '나폴리 댄스'**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엔리코 모리코네 **영화 <미션> 중 '넬라 판타지아'**  
J.슈트라우스 **황제 왈츠**  
번스타인 **뮤지컬 <The West Side Story>**  
**모음곡**  
에발트 **금관5중주 제1번 - 3악장**  
흑인 영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



브라스마켓

PLACE

## 윤이상기념공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윤이상기념공원은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을 기념하고 음악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전시실, 에스파체, 메모리홀, 경사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이상을 기리는 국내 유일의 기념관으로써,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4회의 자체 기획공연을 비롯해 다수의 대관공연이 이루어지며, 3월 통영국제음악제와 10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의 공연이 개최됩니다.

PROFILE

### 장성 (Piano)

예원학교를 수석 입학하고 16세 나이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한 피아니스트 장성은 2003년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최연소 1위와 실내악 상, 일본 엑스포 협회상, 난파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KBS 신인음악콩쿠르 1위, 하노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와 청중상 등 국내외 수많은 콩쿠르를 석권하였다.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피아노 최고연주자과정과 실내악 석사 과정을 공부 중이며, 독일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장성

PROGRAM

스트라빈스키 페트로슈카  
스크리아빈 피아노 소나타 제4번 F#장조, 작품 30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 작품 178  
라벨 라 발스

## 함안문화예술회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문화예술회관은 함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준공된 이후로 함안 군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극에서부터 뮤지컬,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통해 함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획공연을 15~2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은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문화의 감동이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멋진 날개를 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함안 군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렸으면 합니다.

### 전민경 (Oboe)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제43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를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였고, 부천시향, 수원시향 등과 협연하였다. 현재 TIMF양상블, 카르포스 오보에 앙상블, 솔로이스츠 챔버 그룹 등에서 활동하며 숙명여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등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 유재연 (Piano)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와 한예중 반주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한예중과 목원대에 출강하며 후배양성에 힘쓰고 있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열리는 국제 콩쿠르 지정 반주자로 활동 중이다.



전민경



유재연

J.S.바흐 신포니아, 작품 156  
닐센 두 개의 환상 소품, 작품 2  
슈만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맨스, 작품 94  
실베스트리니 오보에를 위한 여섯 개의 에튀드 - 1악장  
슈만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PLACE

##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단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한 편의 문화공연이 주는 감동은 우리를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시키고 삶을 되돌아보는 지혜를 키워줍니다.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의 명성에 걸맞은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태어난 해운대문화회관은 앞으로 '문화도시 해운대'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동과 환희가 넘쳐나는 무대를 선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문화심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ROFILE

### <황신혜밴드>

1996년 결성된 황신혜밴드는 1997년 데뷔앨범 <만병통치>를 발표하며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충격과 인디밴드 붐을 일으켰다. 밴드 멤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형식의 가변적인 라인업으로 음반마다, 공연마다 새롭고 다른 형식에 도전하는 자유로운 밴드이다. 종합예술을 지향하는 무대 퍼포먼스와 실험적인 사운드, 해학과 기지가 넘치는 가사, 한번 들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단순명료한 노래들로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황신혜밴드의 핵심인물 김형태는 자칭 '무규칙이종예술가'로서 미술을 전공한 화가이자 밴드리더, 싱어 송라이터, 음반 프로듀서, 무대미술가, 연극배우, 뿐만 아니라 청춘카운슬러로 스티디셀러 <너 외롭구나>의 저자이기도 하다.



황신혜밴드 김형태

PROGRAM

**Pain Killer**  
닭 대가리  
피난열차  
맛 좀 볼래  
밥 중독  
잘 먹겠습니다.  
말  
쌍방과실  
오목교 러브스토리  
짬뽕  
왔다 갔다

## 구미역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2동

경부선에 있는 기차역인 구미역은 코레일 대구본부 소속으로 아포역과 사곡역 사이에 있습니다. 1916년 11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후, 1966년에 역사가 개축되고 1982년 증축되었으며, 2006년 구미민자역사를 신축하였고, 현재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포르테 금관5중주단 Forte Brass Quintet>

포르테 금관5중주단은 전남지역 유일의 금관 실내악단으로 2012년 지역의 관악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향의 단원과 전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금관주자 5명이 모여 창단하였다.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금관 앙상블만의 매력으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김승환 (Trumpet)** 현재 한예중 오케스트라 전문사 3년 과정 중, 목포시향 단원

#### 윤지수(Trumpet)

현재 목포대 대학원 음악교육과 재학 중, 아디아 윈드오케스트라 단원

#### 김소연(Horn)

현재 목포시향 단원, 신안 KIDO 오케스트라 관악 강사

#### 김동민(Trombone)

현재 몰토 윈드오케스트라, 아디아 윈드오케스트라 단원

#### 최양석(Tuba)

현재 Sousa Tuba Ensemble 단원, 목포시향, 목포시립합창단 객원 편곡

Tylman Susato **Susato suite**  
Richard Rodgers **Do Re Mi song**  
김동호 **이슬**  
Scott Joplin **The Harlem Rag**  
Louis Armstrong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John Philip Sousa **Sousa Collection**  
모차르트 **Turkish March**  
비제 **Carmen Overture**  
Leroy Anderson **Bugler's holiday**



Forte Brass Quintet

PLACE

# 김주연의 집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경남 김해에 사는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저와 동생은 종종  
음악회를 찾곤 하지만,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공연을 보실 기회가  
좀처럼 없었는데  
원데이 페스티벌이  
저희 집에서 열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여  
멋진 공연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PROFILE

### 장은영 (Soprano)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부천시향, 부산시향과의 무대에 올랐으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 등에 출연했다. 현재 부산예중, 부산예고에 출강, 광주대 외래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동시에 독일 가곡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박상진 (Bass)

동아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노보시키르스크 국립 오페라발레극장 상임 솔로리스트를 역임했으며, <마술피리>, <돈 카를로>, <박쥐> 등 다수의 오페라에 주역 및 조역으로 활약했다. 현재 동아대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 임소영 (Piano)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피아노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시립합창단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오페라학교 음악코치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반주연구회회원으로 활동 및 인제대 외래교수로 있다.

PROGRAM

- 김성태 **동심초**  
드라마 <명성황후> OST 중 '나 가거든'
- 조두남 **벳노래**  
드라마 <모래시계> OST 중 '백학'
-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OST 중 'Traumerai (작은 꿈)'  
L. Arditi **Il bacio (입맞춤)**  
S. Gastaldon **Musica Proibita (금단의 노래)**
- 차이콥스키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 차이콥스키 **나의 천재성, 나의 천사, 나의 친구**
- 글린카 **열망은 핏속에 불타오르고**
- 모차르트 **터키행진곡**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OST 중 'All I ask of you'



장은영



박상진



임소영

# 까페 사람이야기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대구 동구 율하마을 내에  
위치한 '까페 사람이야기'는  
마을 사람들과 발달장애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예쁜 카페입니다.  
매달 '사람이야기' 땅이야기  
행복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 뮤지션에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과 같은 편안함으로  
마을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발달장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 최인 (Guitar)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벨기에로 유학, 레멘스인스투트 (Lemmensinstituut)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내악과 독주활동을 펼쳐왔으며 서울대 현악합주, 원주시향, 부천신포니에타와 협연 및 다수의 독주회, 피에스타 기타 앙상블, 기타콰르텟 Imagine, 듀오 카프리치오소의 리더로 활동해왔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학구적이고 감성적인 그의 연주는 유럽과 한국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최인

- 스카를라티 **소나타 - 안단테 칸타빌레, 작품 238**
- 바이스 **환상곡**
- 테데스코 **지옥의 광사곡**
- 줄리아니 **라 로즈, 작품 46**
- 줄리아니 **레 로시니에 제2번, 작품 120**
- 아사드 **작별**
- J. S. 바흐 **바이올린 파르티타 중 '사콘느' 제2번, 작품 1004**
- 브라우어 **아이디어**
- 도메니코니 **사콘느**

PLACE

## 다별자연학교

경상남도  
합양군 서하면

천하절경 화림동 계곡에  
최치원, 박자원의  
선비문화가 꽃피운 곳. 이곳  
학교 내 한옥과 정자에서  
하우스콘서트의 국악을  
즐기기로 하였으니,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신명나게  
즐기십시오!

PROFILE

### 마혜령 (해금)

한예중 전통예술원을 졸업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전수자로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독주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국영화음악 페스티벌 초청 연주회,  
Nodam Arts Festival 몽골 초청 연주회 등 국내외의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현재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상임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 김태우 (대금, 소금)

경북대 국악학과를 졸업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전수자, 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 정악  
전수자이다. 국악관악양상블 포 브라더스의 악장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상임단원이다.

### 성숙진 (가야금)

중앙대 국악대학 국악관현악과를 졸업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전수자이며, 전북  
국악관현악단, 안산시립국악단과 협연한 바 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주최로 가야금 독주회 '젊은 예인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PROGRAM

천년만세 中 계면가락 도드리  
상령산 풀이  
흔들의자 (조원행 작곡)  
Autumn Leaves  
도라지  
Memory  
My heart will go on  
아리랑 변주곡 (이정면 작곡)



마혜령



김태우



성숙진

## 상주보육원

경상남도  
상주시 낙동면

상주보육원은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경북 상주시  
낙동면에 자리잡고 있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3개월 된 영아에서  
대학생까지 총 74명의  
원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기초수급 가정  
자녀들이 위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로 입소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주보육원에서는  
소외계층의 아동들에게  
정서함양의 목적으로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플루트, 바이올린  
등의 음악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베아르시 스트링 콰르텟 Bearsi String Quartet>

#### 신선 (Violin)

소년한국일보 콩쿠르 대상, 호남예술제 금상, 이화경향  
콩쿠르 3위, 한국일보 콩쿠르 2위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선은 전주시향, 서울시향 등과 협연한 바  
있다.

#### 김은유 (Violin)

한미콩쿠르 전체 대상, KCO콩쿠르 1위, 음악저널 콩쿠르  
3위 등의 다양한 음악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현재 서울대 음대에 재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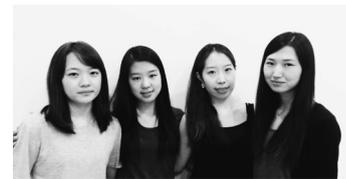
#### 노소희 (Viola)

서울대 음대 4학년에 재학 중이다.

#### 이성희 (Cello)

국민일보 1위, 오사카 국제 콩쿠르 특별상, 코리아  
헤럴드 콩쿠르 1위 없는 2위 등을 수상하였고, 선화예고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어쿠스틱 카페 라스트 카니발  
이지수 드라마 <봄의 왈츠> 중 'Flying Petals'  
몽티 차르다쉬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제5번  
베토벤 현악 4중주 제6번 B♭장조, 작품 18



베아르시 스트링 콰르텟

PLACE

## 아트팩토리 청춘

대구  
중구 대봉동

“새로운 시작, 신선한 감동  
Art Factory 청춘”  
예술은 우리의 일상과  
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일상의  
놀이입니다.  
아트팩토리 청춘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작품을  
펼치고 관객과 창작자,  
예술가가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문화공간입니다.

PROFILE

### 이혜연 (Vio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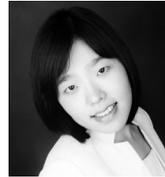
선화예고, 미국 오벌린 음대, 라이스 음대 등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폴란드 내셔널 필하모니, 헝가리안 캄머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으며 아스펜 서머 뮤직 페스티벌, 그린 마운틴 뮤직 페스티벌, 대관령 음악축제 등에 참가하였다. 작곡가 브라이언 크레인과 바이올린 &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전국 투어 연주를 진행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한주형 (Piano)

맨하탄 음대, 서울대 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 세종대 음대 피아노 교수학에 재학 중이다. 부산국제음악제, 베이징 뮤직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피아노 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였으며 로맹 갤러리, 금호아트홀 등에서 다수의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이혜연



한주형

PROGRAM

- J. S.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제2번 중 사라방드
- 쇼팽 발라드 제4번 f단조, 작품 52
- 파가니니 바이올린 소나타 제12번 e단조
-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a단조, 작품 105
-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 해군9전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 제9 잠수함 전단은  
우리나라 유일의  
잠수함 부대로서  
21년이라는 짧은 잠수함  
운용 역사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잠수함  
무사고 안전운용 20주년,  
2013년에는 국제 잠수함  
교육과정 개최 등으로  
전 세계에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잠수함  
사령부승격을  
예정하고 있다.

### 김유은 (Violin)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2008 성정음악콩쿠르 1위, 2012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콩쿠르 파이널리스트에 오르는 등 다양한 국내외의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금호아트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주니어 단원, 재능기부 단체 '별빛' 멤버,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유세형 (Piano)

현재 서울대 음대에 재학 중으로 부산음악콩쿠르 1위, 중앙음악콩쿠르 3위, 서울음악콩쿠르 1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젊은이의 음악제, 청와대 실내악 연주에 참여하였으며, DS홀, 서울대 콘서트홀 등에서 다수의 독주회를 가졌고, 부산시향, 국립경찰교향악단, 계원예고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김유은



유세형

-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 사랑의 기쁨
- 비발디 <사계> 중 '여름' - 4악장
-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 2,4 악장
- 거쉰 <포기와 베스> 중  
- '뽀머타임'  
-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
-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제5번
- 피아졸라 망각
- 몽티 차르다쉬

PLACE

## 김제문화예술회관

전라북도  
김제시 교동

2009년 4월 첫 문을 연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시민들이 휴식하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기반이 부족하여 문화향유에 목말라 있던 김제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유지하여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무한한 가치를 담은 아트센터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PROFILE

### 가영 (Viola)

서울예고, 한예중을 거쳐 뉴욕 메네스 음대 석사를 졸업했으며 다양한 레퍼토리로 코리안심포니, 부산시향, 마산시향, 창원시향, 제주시향 등과 협연하였다. 현재 부산시향 비올라 수석,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 히로 히다메 (Piano)

도요타 시티 콘서트 홀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오페라 음악감독 겸 피아니스트로 일본 쿠니타치 대학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오페라 코치로서 이탈리아에 수 차례 초대되어 유명 오페라 가수들과 작업하였고 국제 성악 콩쿠르 심사위원으로도 초대되고 있다. 현재 와세다 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가영



히로 히다메

PROGRAM

쉐드린 알베니즈 스타일로

피아졸라 탱고 블루스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가영 애원

**My heart like morning springtime**

(내 마음 봄날 아침과 같아)

**Soul meets soul** (당신의 영혼을 본 순간)

**Nostalgia** (향수)

**Vanished tree** (사라진 나무)

**The last waltz** (그대와 마지막 왈츠)

**Age of innocence** (우리 사랑 영원히)

**Mother's lullaby** (어머니의 자장가)

##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뿌리 깊은 마백(馬百) 문화의 근원지인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에 위치한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1996년 11월 예술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간과 전시의 기능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산책 장소와 휴식장소로도 많은 사랑 받고 있습니다.

### 정록기 (Baritone)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을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바리톤 정록기에게 유럽의 언론들은 '차세대 피셔 디스카우'라 칭하며 카리스마 있는 연주자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양대 음대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으며 1992년 국제 ARD원현 콩쿠르 3위, 로베르트 슈만 국제 가곡 콩쿠르와 1994년 휴고 볼프 국제 가곡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국제적 명성을 드높였다. 1997년부터 칼스루에 국립음대에 출강하여 독일 학생들에게 독일 가곡을 강의하였으며, 2005년부터 모교인 한양대 음대에서 전임교수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

### 최사랑 (Piano)

덕원예고, 추계예대를 졸업하고 한예중 예술전문사 오페라 코치 전공을 졸업했으며 다수의 오페라 반주 및 공연을 하였다. 현재 한양대 정록기 교수 클래스의 공식 반주자이다.



정록기



최사랑

### - 사랑과 꿈을 노래하는 독일 가곡 -

베토벤 당신을 사랑하오 / 입맞춤

슈베르트 들장미 / 보리수 / 송어

슈만 연꽃 / 헌정 / 달밤

브람스 오월의 밤 / 헛된 소아곡

볼프 은둔 / 아무리 작은 것도

R.슈트라우스 간직하는 사랑 / 헌정

PLACE

# 장성문화예술회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같은 날, 같은 시간,  
色다른 공연!  
하우스콘서트의  
One Day Festival!  
호남의 관문  
장성문화예술회관이  
여러분을  
'안데스 음악정원'으로  
초대합니다.

PROFILE

## <가우사이 Kawsay>

가우사이는 아시아 최초이자 한국의 유일한 안데스 민속음악 전문 공연단이다. 가우사이(Kawsay)는 잉카스 고유 언어이며 Kawsai(인생)과 Sisay(꽃이 피다)에서 각각 앞뒤 글자를 합쳐 탄생하였으며 그 뜻은 '피어나는 인생'이다. 현 멤버들의 아버지들에 의해 에라도르 오파발로에서 결성된 잉카스 정통 혈통의 그룹으로 지금은 3세인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스승이 되어 무대에 함께 오르는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안데스 악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악기를 비롯해 중국의 전통악기 또한 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다양하고 감칠맛 나는 공연을 펼쳐 보이고 있다. 300년이라는 식민지 기간 동안 자신들의 문화를 하나의 상실 없이 지켜온 민족적 열정을 이어 받아, 앞으로도 문화적 편견에 부딪치지 않고 잉카스의 혈통으로서 진실된 문화를 알리는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자 한다.



가우사이

PROGRAM

- Sikuris
- El condor pasa (철새는 날아가고)
- Wayrapac Muspuinim (꿈은 바람처럼 온다)
- Agua dulce (달콤하고 신비한 사랑의 묘약)
- 아리랑
- Sur tierra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환영의 노래)
- Ultimo Amanecer (일출)
- 희나리
- Rumba lambada

# 대담미술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함께 느껴요 Eco Life'  
대담미술관은 자연, 사람,  
문화, 예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예술적 감동과 문화적  
공간이 피어나는 담양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문화적 혜택에 소외 받는  
지역작가들에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고 지역의 특색을 띤  
독자성 있는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세계를 담양으로... 담양은  
세계로'의 설립정신에 맞춰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합니다.

## <베리우스 스트링 콰르텟 Verius String Quartet>

### 이수아 (Violin)

서울예고, 이화여대 음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유로-아시아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 객원 악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북대, 전주예고, 전주예중 등에 출강 중이다.

### 윤여진 (Violin)

서울예고,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제주 챔버 오케스트라, 트리니타스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역임한 후 현재 서울 신포니에타, 카리엔 현대음악 앙상블 단원,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 이기선 (Viola)

서울예고, 한예중 음악원, 만하임 국립음대, 뉘른베르크 국립 음대를 수료했다. 만하임 국립 음대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하고 현대음악 앙상블 Trois C 멤버, M4ONE 하모니네이션, 인천예고, 서울기독대에 출강 중이다.

### 안소연(Cello)

숙명여대 음대,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현재 협성대 겸임 교수이자 숙명여대, 경기예고, 선화예술학교를 출강하고 있으며 Cello Passionato, 트리오 La Mer, SM콰르텟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 비발디 사계 중 '여름'
- 멘델스존 현악4중주 제2번 a단조, 작품 13
- 하이드리히 '생일 축하' 변주곡
- 조플린 엔터테이너



이수아



윤여진



이기선



안소연

PLACE

# 사랑의 광장

전라북도  
남원시 어현동

남원시 어현동 일대에 위치한 '사랑의 광장'은 2천여석의 관람석과 공연장, 대기실(준비실)이 구비되어 있고 바로 옆 대형주차장과 함께 전국 최초의 야외 음악분수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남원시민의 휴식처이며 문화예술활동 공간입니다. 사랑의 광장이 위치한 동편제 거리는 지리산의 맑은 물이 흐르는 요천 물줄기를 따라 동편제 판소리 성지인 남원을 나타내며, 판소리 다섯마당 구절과 상징적인 조각 그림 등 조형물과 야간 경관조명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PROFILE

### <Andrey Jazz Trio 안드레이 재즈 트리오>

#### 안드레이 비니첸코 (Piano)

러시아 극동 아트 아카데미와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하바로프스크 아트 칼리지 교수를 역임하였다. 일본 오사카 국제음악콩쿠르에 입상한 바 있고, 러시아와 유럽은 물론 KBS 클래식 오디세이에 출연하는 등 한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탱고카르텟 '코아모러스'의 멤버이기도 하다.

#### 김대호 (DoubleBass)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과에서 수학했으며 네덜란드, 함부르크, 에딘버러 등의 클럽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종성(하모니카), 윤주희(해금) 등의 앨범과 공연에 참여하여 연주하였고, Pianist 'louis durra' club tour, 인도네시아 발리 월드뮤직 엑스포 콘서트에도 참여한 바 있다.

#### 김민찬 (Drum)

데이먼 브라운, J.Q. 워컴, 팀 아마코스트 등이 손꼽는 드러머로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과에 재학 중이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 두 차례 참여하여 연주자로서의 실력을 입증했다.

PROGRAM

- Frank Churchill **Someday my prince will come**
- Jacques Demy **I will wait for**
- George Gershwin **Foggy Day**
- Thelonious Monk **In Walked Bud**
- Herbie Hancock **Dolphin Dance**

- George Gershwin, Thelonious Monk, Cole Porter 등의 스탠다드 재즈곡들로 즉흥 선곡될 예정입니다.



안드레이 비니첸코



김대호



김민찬

#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사단법인 수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한옥생활체험관은 옛 양반가옥의 생활문화를 현대적 삶 속에서 재발견하고 문화의 향기를 나누며, 세상의 조화로운 공꾸어 좋은 풍속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가양주 문화를 널리 보급하여 우리 술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단법인 수을]이 전주시와 함께 후원합니다.

#### 이승원 (Viola)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이승원은 현악4중주 팀 노부스 콰르텟의 멤버로 하이든 실내악 콩쿠르 3위 및 청중상, ARD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하는 등 여러 국제 무대와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솔리스트로서는 2010 베토벤 호라믹 국제 콩쿠르 2위 입상에 이어 폴란드 미살 스피작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위 및 현대곡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 독주자 최고 연주자 과정에서 타베아 침머만을 사사하고 있다.

#### 남윤정 (Piano)

한예종 전문사 반주전공을 졸업하고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수학했다. 크누아 바이올린 시리즈 및 금호아트홀, 영산아트홀의 영아티스트콘서트 반주자, 2012년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의 공식 반주자로도 활동하였다.

- 슈만 **'이야기 그림책' d단조, 작품 113**
- 힌데미트 **무반주 비올라 소나타, 작품 25-1**
- 비외탕 **솔로 비올라를 위한 카프리치오, 작품 55**
- 브루흐 **로망스, 작품 85**
- 피아졸라 **그랜드 탱고**



이승원



남윤정

PLACE

## 정애자의 집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어느 날, 하우스콘서트의  
원데이 페스티벌  
가정집 공모 메일에  
신청을 했고, 얼떨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집이 너무 좁은 것은  
아닌가, 서울에서 시골까지  
연주자에게 민폐는 아닌가.'  
하지만 걱정도 잠시,  
차곡차곡 하우스콘서트는  
진행되고 저는 준비를  
하며, 사람들이 집에 모여  
오순도순 좋은 모임의  
시작이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PROFILE

### 정재원 (Piano)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으로 유학을 떠나 학사와 석사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태리 이몰라  
아카데미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비엔나의  
비젠도르퍼샤 초청 독주회를 시작으로 이태리 부조니  
페스티벌, 노르웨이 그리그 페스티벌, 핀란드 Suolahti  
페스티벌, 뉴욕의 카네기 웨일홀 등에서 연주하였다.  
2010년부터는 독일 Wetklassik Klavier사 소속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세종문화회관  
독주회를 시작으로 국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PROGRAM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E♭장조, 작품 27-1
- 베토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c#단조, 작품 27-2  
'월광'
- 슈만 피아노 소나타 제1번 f#단조, 작품 11



정재원

## 창작지원센터 제2호

(전주동문예술거리추진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 동문예술거리에  
위치한 창작지원센터는  
지역 공연예술팀들을 위한  
특화된 공연장으로 2012년  
10월말에 열어 지역  
인디밴드와 청소년밴드의  
공연장이자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원 데이  
페스티벌에서는  
지하공연장의 특색과  
신선한 기획을 살려  
뮤지션과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업을 진행하는 미디어  
콜라보레이션(Media  
collaboration)으로 공연을 진행합니다.

### <발칭유 아나스타시우 컨템포러리 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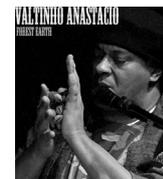
발칭유 아나스타시우 (Percussion & Vocal),  
강해진 (Violin), 최진배 (Double Bass), 배장은 (Piano)

### 발칭유 아나스타시우 (Percussion & Vocal)

콩가, 판데이루, 비링바우, 아고고 등을 공부하며 브라질  
최고의 뮤지션들에게 음악을 배우고 일본과 뉴욕에서도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2009년 솔로  
음반 <Forest Earth>를 발표했고, 한국에서 에스닉/퓨전  
음악 그룹 '두 번째 달'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산에,  
윤도현, 현대수 등의 한국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한 바 있다.

### Encontros e Despedidas

- San Vicente
- Little Sunflower
- Fragile
- Cantiga Do Caico
- Chorinho Das Comadres



Valtinho Anastacio



김상현



송대규

### <PROJECT 샘=숨>

#### 김상현 (Media Art)

전라북도 전통소리문화 국악음원작업 디렉터이며  
2002 월드컵 퍼레이드 음악, 제5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장자와 나비' 음악을 제작하였다. 현재 국립중앙극장  
악기개발연구원, 남원시립국악원 및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STORY Music과 (주)TORI Music  
대표를 맡고 있다.

#### 송대규 (Media Art)

한국실험예술정신(KoPAS)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흥대 앞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만나며 공동 작업을  
하였고, 전주에서 NoM, Performance Project GAZE 등의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했다. 현재는 크리에이티브 기업인  
Interactive 30DAYS를 설립하고 CEO이자 아트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PLACE

## 작은공연장 단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강릉의 오래된 이야기를 머금은 마을 명주동. 골목 곳곳에 심어진 꽃들을 보며 조용히 골목을 거닐노라면 세월의 흔적을 지닌 옛 건축물과 커피콩 볶는 내음으로 가득 찬 그 곳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혹은 연인, 친구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곳. 작은공간을 가득 메우는 선율의 울림과 손 뻗으면 닿을 거리의 상상의 공간. 공연 후 즐기는 아외마당 파티 등 공연관람을 넘어 공간과 함께 즐기는 공감의 시간. 골목길 너머 행복한 이야기를 만드는 이곳은 작은공연장 단입니다.

PROFILE

### 메이세컨 (Piano)

5월 2일을 뜻하는 메이세컨은 5살에 피아노를 시작했다. 생일선물로 처음 피아노를 받은 날이며, 작곡가, 프로듀서, 피아니스트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다. 세련된 음악성과 감수성이 돋보이는 그녀의 음악은 라디오, 드라마, 광고 등 많은 매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정식앨범 발표 이외에도 프로듀서, 작곡가로 활동, 다수의 콘서트 및 연주활동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허희정 (Violin)

'허 트리오'의 멤버이며, 서울대, 수원대에 출강, 서울종합예술학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 조준성 (Percussion)

김정옥 밴드, 김선욱 밴드, 밴드 '빨간지'의 드러머로 활약 중이며 M.Net 쇼미더머니 콘서트 하우스 밴드와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의 세션으로 참여하였다.

### 이동찬 (Guitar)

무주 썸머페스티벌, 드라마 <별순검> 시즌 3의 OST 등에 참여하였다. 현재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PROGRAM

메이세컨 **SWEET ESCAPE**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LAST DANCE**  
당신을 기억합니다  
한 여름 밤의 꿈  
해와 비  
알렌 오버 더 레인보우  
피아졸라 미켈란젤로 70  
몽티 차르다쉬  
로드리고 내사랑 아랑후에즈



메이세컨

## 카페세바

제주도  
제주시 초천읍

음악에 대한 순수함을 가진 예술가와 예술에 대한 사랑을 가진 관객이 만나는 공간! 카페세바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마을인 제주도 선흘리에 위치한 카페이자 복합문화 예술공간입니다. 돌담 길을 돌고 돌아 마을 깊숙이 자리잡은 세바는, 평소에는 커피를 즐기고 오랜 마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주말에는 제주에서 접하기 힘든 재즈와 클래식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 사랑 받는 공연장이 됩니다. 전시회나 마을 기획전, 미술치료 스튜디오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이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 임수연 (Piano)

역량 있는 현대음악 전문연주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수연은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을 졸업하고 연세대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TIMF양상블의 창단멤버로 2001~2011년까지 활동하면서 독일 다름슈타트 국제음악제, 폴란드 '바르샤바의 가을', 루마니아 바카우 음악제, 태국 세계현대음악축제, 북경 현대음악제,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 일본초청연주, 오스트리아 Aspekte 페스티벌 등 전세계의 주요 현대음악제에서 연주한 바 있다. 2006년부터 <임수연의 Modern, Contemporary>라는 독주회 시리즈를 통해 리게티, 베리오, 달라피콜라, 메시앙, 슈톡하우젠, 락한만, 진은숙과 같은 20세기 주요 작곡가들의 음악을 한국 초연해 왔으며, 최근 서울시향과의 협연으로 Olga Neuwirth의 피아노협주곡을 아시아 초연하여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현재 연세대와 중앙대에 출강 중이다.



임수연

플랑크 3 개의 노벨레테와 토카타  
드뷔시 판화  
빌라 로보스 세 마리아  
스크리아빈 왼손을 위한 야상곡, 작품 9  
라벨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조지 크럼 꿈의 영상

PLACE

# 본태박물관 (아트캠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본태(本態), 즉 본래의 형태라는 뜻을 지닌 본태박물관은 전통과 현대의 공예품을 소개하여 인류 공통의 아름다움의 탐색을 목적으로 2012년 제주도에 지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건축을 맡아 대리석을 연상케 하는 건축가 고유의 노출 콘크리트와 건축 요소로 차용된 빛과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설계 되었으며, 전시 뿐 아니라 교육, 세미나,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도의 새로운 문화 공간입니다.

# 제주스테이 비우다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스테이 비우다는 예술문화 콘텐츠 기획자가 여행과 휴식을 문화예술과 접목시켜 완성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드넓은 굴밭 숲 가운데 전시와 공연을 품을 수 있는 다이닝과 작은 미술관 속에 있는 듯한 머무름의 공간이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차고 넘치는 현대의 일상을 비우고 제주 자연으로부터 생성된 새로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곳이며, 국내외 정상급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 전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PROFILE

## <카메라타 제주 Camerata JEU>

### 이승일 (Violin)

줄리어드 음대, 뉴욕 메네스 음대를 졸업하였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입상하였고, 워싱턴 국제 콩쿠르, 바흐 국제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체스터 필하모닉의 악장을 역임하였다.

### 장선경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장선경은 독일 도르트문트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제주도향의 비올라 수석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제주대 예술학부를 출강하고 있다.

### 최원준 (Viola)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였다. 벨기에 이 피아밍기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부산시향 비올라 수석을 거쳐 현재 제주도향의 비올라 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 예지영 (Cello)

부산대 음대, 뉴욕 주립대를 졸업하였다. 울산시향 단원, Purchase Symphony Orchestra 수석, 카메라타 앙상블 단원을 거쳐 현재 제주도향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대, 한라대에 출강 중이다.

### 문웅휘 (Cello)

젊은 현악 4중주 팀 노부스 콰르텟의 첼리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웅휘는 2008년 한국인 최초로 오사카 국제 콩쿠르 3위 입상, 2012년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며 남다른 재능을 입증했다. 2012년 9월에는 세계 실내악 최고 권위의 독일 ARD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 하며 대한민국 실내악의 역사를 새로 쓰기도 하였다. 한예중 졸업 후 현재 함부르크 국립음대, 뮌헨 국립음대에 재학 중이다.



문웅휘

PROGRAM

하이든 현악 4중주 D장조, 작품 76, 제5번  
멘델스존 현악 4중주 D장조, 작품 44, 제1번



이승일



장선경



최원준



예지영

J. S.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4번 F#장조  
펜데레츠키 무반주 첼로 모음곡



## ARTIST Q & A

더하우스콘서트는

2013 원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연주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공연을 하게 될 몇몇 연주자들을 위한 개별 인터뷰

<아주 특별한 인터뷰>와

페스티벌부터 다소 개인적인 질문까지

던져 보았던 <ARTIST Q&A>를 통해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생각과

진솔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다소 뻘한 질문들에도

재치 넘치는 답변을 깨알같이 적어 주신

아티스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원데이 페스티벌

참여 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1.

같은 날 같은 시각, 동시다발적으로 공연을 열겠다는 하우스콘서트의 <원데이 페스티벌>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김유은 하우스콘서트가 재미난 일을 하는구나! 신난다!

(아차차 스텝 분들께 죄송...ㅠㅠ)

신현필 도대체 몇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연이

열리는지 똑똑히 세어봐야겠다. ㅋㅋ

문웅휘 하나의 공연을 기획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하곤의 이 놀라운 추진력!

메이세컨 도전 정신, 너무 멋져!

정재원 그냥 궁금했어. '이번에 난 또 어디 가게 될까?',

'어떤 프로그램이 기발할까?', '어떤 연주자들이 원데이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될까?'

이정란 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김책 의미 있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하곤의 페스티벌에

작년과 올해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난 사실 100개의

공연이 쉽게 준비되는 건 줄 알았어. 순진했던 거지.

생각과 달리 굉장히 힘들게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좀 놀랐었고.

한형일 (서울기타콰르텟) 하우스콘서트와 오랜 시간

좋은 인연을 맺어왔는데, 이번에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2.

관객들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다면?

이보경 난 그린카드 준비했어... ^^;;

이효주 밝고 희망적인, 그리고 행복한 곡들로 선곡했어. 병원에서 연주하는 만큼 레퍼토리 선정에 좀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

신현필 안 가르쳐주지!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윤은자 내 악기 자체가 나의 비장의 카드랄까. 거문고는 옛날옛적, 학식 있는 선비들이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켜던 악기였어. 근심걱정을 털고 복잡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목적이 강한 악기이니 복잡한 지금 이 시대에 제격이지.

김민정 (소리공간-너루) '너루'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관객과의 소통!

김형태 (황신혜밴드) 따로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없어.

우리 음악은 기본적으로 대중친화적인 코드와 공감대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업해 왔으니까.

문웅휘 감동적인 소리

브라스마켓 줏. 영업비밀...



3. 공연할 공간과 지역에 대한 예습, 다 끝내셨나요?

**김충선 (우주히피)** 지역과 공간명만 알고 있고 일부러 더 찾아보지는 않았어. 잘 모르는 상태로 가야 그만큼 긴장감도 있고, 기대도 커지니까.

**김유은** 진해의 해군부대에서 연주하게 되었는데, 진해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기대가 매우 커. 나에게도 사실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친척 동생이 있거든. 동생을 생각하며 군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어.

**이효주** 최근 외할머니가 수술을 받으셔서 자주 병원에 갔었는데, 어느 날 병원 로비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홀로 쓸쓸히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어. 순간 당장 피아노로 달려가서 병원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거든. 그 날의 바람이 7월 12일에 이루어 지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몰라

**라정혜** 박창수의 하우스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율하우스에서 공연하게 되었어. 율하우스에서 열리는 하우스콘서트에는 진정한 음악애호가들이 찾아오잖아. 그래서 많이 설레고 기대돼 ^^

**마혜령** 함양이라는 지명을 들어본 적은 있어.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함께 가는 연주자들과 특산물, 맛있는 음식 등을 알아보는 중이야. 공연할 장소의 홈페이지를 보니 아담하고 친근한 느낌이라서 우리 연주와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김세운** 교회에서 연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교회는 DUOfor가 가장 편안하게 연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거든.

**이보경** 작년 페스티벌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논산과 안동에 갔었거든. 관객 분위기가 매우 따뜻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 이번에는 서울 홍대 지역에서 공연하게 되었는데, 다른 장르의 음악이 많이 연주되는 장소라 살짝 걱정되긴 해.

**정재원** 나는 일반 가정집에서 업라이트 피아노로 연주해야 한다고 들어. 마치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의 느낌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연주했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을 프로그램에 넣었지.)

4. 연주 활동에 영감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요?

**Forte Brass Quintet** 대학 시절 부전공으로 작곡을 했었어. 밤늦게 자취방에서 작품 출품을 위해 고민하던 중 어디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상당히 리드미컬하게. 마치 헨델이 메시아를 순식간에 썼듯 그렇게 피아노, 타악기, 튜바의 편성으로 곡을 써내려 갔지. 제목은 '자취방의 똥개'. 실수로 지금은 초고가 남아있지 않지만, 있었다면 아마도 명곡의 반열에 이를 수 있었을 뻔 했다..랬을..텐데..!!

**이경선** 자기 직전에 나의 연주나 내가 연습한 것을 틀어놓고 들으며 좋은 점, 나쁜 점을 재점검하곤 해. 연주자 본인이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계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믿거든.

**윤은자** 동심 그리고 아이들과의 놀이. 집중이 안될 때는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곤 해.

**최인** 카를로 도메니코니, 그리고 바흐의 곡들이 내게 항상 영감을 줘.

**이정란** 정말 쉽고도 어려운 질문인데... 연주자의 영감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해. 제3세계의 난민들 뉴스를 보면서 저런 곳에 음악이 닿길 소망하기도 하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 중인 벨스 만델라의 쾌유를 기원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춤과 노래 속에서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일상 속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만들어 준 요리사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 준 작곡가 같은 생각을 하고, 이 요리사가 만들어 준 음식을 내 테이블까지 가져다 준 웨이터가 음악의 전달자로서 바로 내가 관객에게 할 일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

**문운휘** 내가 사는 독일 함부르크는 날씨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곳이 많아. 나는 주로 호수를 산책하거나 공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해. 생활 전반에 음악이 폭넓게 묻어나는 곳이라,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용기와 영감을 많이 얻지.

**김유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재능기부활동이야.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힘든 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종종 연주를 하는데, 그들은 연주를 잘 하나~ 못 하나~ 눈 여겨 보지 않고 그저 와서 연주해 주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해 하시거든. 그래서인지 '지금 이 연주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바이올린 소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하게 돼. 한 번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내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시는 도중 운명하신 분들도 계셨어.

5.

한국에서 음악가,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느끼셨던 불편한, 혹은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책 최근 지방 소도시 공연장에 연주를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춘 극장들과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습도조절에 실패하고 있음에 분노하고 좌절하곤 해. 행정적인 면을 담당하는 국가단체 혹은 공연장 관계자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개인들이 노력하는 것이 참 초라해질 수도 있겠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김세운 다양한 음악을 접할 기회도, 연주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것. 공연이라면 늘 올라가는 레퍼토리나 유명한 연주자들의 큰 규모의 공연, 아니면 상업적인 행사인 경우가 허다하잖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우리는 또 다음 세기나 되어서 고전으로나 밖에 들을 수 없는 걸까? 이 시대의 예술가들의 소리를 사회에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고, 대중들에게 순수예술의 기능을 누릴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경선 요즘은 예전보다 곳곳에 좋은 공연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클래식 음악의 연주도 점점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 하우스콘서트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서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우리 음악가들이 제대로 대우받으며 활발히 활동하는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라정혜 난 연주회 때마다 연주자가 관객을 동원해야 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워.

이효주 연주회에서 간혹 악장과 악장 사이마다 콜록 콜록 감기환자 놀이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연주자들은 악장과 악장 사이에 청중들이 만들어 주시는 강력한 정적 속에서 소름 끼치는 쾌감을 느끼거든. 관객 분들 좀 도와주세요~

김충선 (우주히피) 공연장에 많이 찾아와 주길! 이어폰, 스피커로만 들던 음악을 더 멋지게 들어볼 수 있거든. 후회하지 않을걸!

신현필 한국이 뮤지션으로서 살아가기에 힘든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만 정부 쪽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으로 한류 밀어주기 같은 일들에 치중하기보다는 예술 그 자체를 존중하여 더 많은 예술가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소망해.

이정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밤을 새워 담론을 나누어도 모자랄걸?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단체나 완벽한 곳은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내 소명인 음악가로서의 삶을 살 뿐이야. 그저 점점 더 좋아지기를 희망하면서....

신날새 나는 공연장 관계자들에게 한 마디. 해금의 음량과 음색의 특성, 구조를 모르면 해금답지 않은 소리로 음향이 확성 되거든. 가끔 공연장에 가면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여. 그리고 해금이 우리나라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해금을 아직도 신기하고 특이하게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정재원 음악가를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귀'로 판단해주세요!

최인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길. 알팍하고 가벼운 것들은 독이 됩니다.

이승원 아직 공연을 찾는 관객 중 대다수가 연주자가 초대한 지인이라는 것과 그 초대를 위해 연주자가 주변인들에게 다수의 초대권을 나눠 주는 상황이라는 것. 초대를 통해서가 아닌 순수하게 음악을 듣고 즐기고 싶어 방문하는 관객들이 더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람이 커. 가우사이 우리를 공연에 초대했던 어느 공무원의 이 말이 떠올라. "우린 차려 놓은 밥상만 먹을까요" ㄱㄱ

INTERVIEW

# 아주 특별한 인터뷰



### 전라도 VS 경상도

@포르테 브라스 퀸텟, 전남 목포에서 활동 중인 팀으로서 경북 구미에서의 공연을 앞둔 느낌이 어떤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 경상북도 구미역에서의 연주 제안을 받았을 때, 멤버들의 반응은, “허걱!!” 그리고 기차와 연관된 곡을 떠올려 보니 아무래도 우리는 ‘비 내리는 호남선~’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 하지만 지역 특성상 자제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 재밌지? ㅋㅋㅋ 아무튼 우리 중 그 누구도 구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열심히 공부했어. ‘구미 시민의 노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앙코르 곡으로 연주해 볼까 하는 고민도 했었지 ^^ 처음 방문하는 도시라 기대가 커.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 색과 약간의 대립감정 등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음악은 한국 공통어라 하잖아! 우린 그 말을 믿어.

### 기독교 VS 불교

@신날새, 사찰에서 음악회를 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2~3번 정도 사찰에서 행사연주를 한 적이 있어. 참고로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절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 지고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



### 그랜드 VS 업라이트

@정재원, 공연장이 아닌 가정집에서, 그랜드가 아닌 업라이트 피아노로 공연하게 되었는데...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나. 피아노를 제대로 배우기 전 장난감처럼 다루던 그 때의 생각... 나는 사실 피아노의 소리와 음향에 집중을 하고 연주에 임하는 편인데, 이번 공연에는 오히려 음악적인 메시지에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입고, 신고 연주해야 좋을지... 가정집이잖아 @.@ 옛날 유럽의 명화에서 나올 법 한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재현해 보고 싶기도 해. 공연은 마치 집에서 가족들을 모셔다 놓고 연주하듯 편안하게 풀어 나가고 싶고. ^^



### 동양 VS 서양

@Andrey, 춘향이의 고장인 남원에 가게 되었는데, 춘향이와 이도령의 러브 스토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뭐야? 사실 남원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서. 그리고 춘향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본 적이 없.....아! 생각났다. 나 한국어 공부할 때 교재에서 본 것 같아.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미안~ 공연 가기 전에 더 공부할게. ^^;

### 클래식 VS 락

@이보경, 인디음악의 메카 홍대 근처에 위치한 ‘골드에이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홍대 클럽에 가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혹시 헤드뱅잉 하시는 분들이 오시진 않겠지? ㅜㅜ



### 한 평의 공간 VS 3대의 피아노 연주

@차혜리, 세상에서제일작은한평극장에서 3개의 피아노 공연을 하신다던데... 그 작은 공간에 피아노가 무려 3대나! 가능한가요?

ㅎㅎㅎ 놀랐겠지만, 내가 연주하는 피아노는 사실 토이 피아노야. 아이들의 장난감용 피아노로 만들어진 건데, 음색도 독특하고 퀄리티도 훌륭하게 갖춰져서 현대음악이나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활용되고 있는 매력적인 악기지. 그러니까... 한평극장에서의 3대 피아노 연주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



##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관객 메시지



하우스콘서트,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

2002년 7월 12일, 박창수 예술감독의  
자택에서 첫 번째 하우스콘서트가  
열렸다. 그리고 10주년이 되던 2012년  
7월, 하우스콘서트는 대한민국의  
공연장을 찾아가 지역 관객들에게 특별한  
일주일을 선사하며 새로운 10년의 막을  
열었다.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 2012 Free, Music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21개  
도시의 23개 극장에서 개최된 이 공연은  
일주일간 총 100회의 공연이 열렸다.

하우스콘서트 컨셉트를 그대로 극장에  
 옮겨와 관객들은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  
방석을 깔고 둘러 앉았고, 연주자와는  
 불과 2-3m 거리에서 연주자들의 땀  
 흘리는 모습과 숨소리까지 느꼈다. 무대  
 위에서의 경험은 모두에게 낯설지만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다.  
 음악회가 낯선 어른들, 오랜 시간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들 모두가 공연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마룻바닥 음악회를  
 즐겼다. 그리고 하우스콘서트에 ‘다시  
 꼭 찾아와달라’는 가슴 벅찬 메시지를  
 남겼다.

전국 9천 여 명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 페스티벌은  
 지역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초문화를  
 다지는 작업으로써 시작되었다. 또한  
 전국에 위치한 400여 개 중극장에  
 상설공연을 활성화시켜 가동율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극장판 하우스콘서트로의 본격적인 시작

하우스콘서트는 2012년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지역문화예술회관이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고있다. 김재문화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당진문예의전당,  
 인천서구문화회관 등 전국 각지의 공연장에서 각 1년에 5회에서 10회  
 가량 정기적으로 하우스콘서트가 열리는 것. 이를 통해 지역의 많은  
 관객들이 클래식, 재즈, 국악, 대중음악, 실험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꾸준히 접하며 생생한 감동의 시간을  
 만나고 있다.

원데이 페스티벌

<2013 원데이 페스티벌>은 보다 많은 관객들이 하우스콘서트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기획된 축제이다. 2012년부터 하우스콘서트가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굳게 닫힌 문을 열지  
 않는 공연장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의 관객들은 무대 위의 경험과 생생한  
 음악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우스콘서트를 만나기를, 혹은  
 언젠가 자신의 지역에서도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극장의 문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더하우스콘서트는 다시 한번 공연장의 문을 열기 위한  
 기폭제를 마련하기 위해 <2013 원데이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2012년  
 페스티벌에서 일주일간 100회의 공연을 했다면, 이번에는 하루에  
 100회의 공연을 하는 것. 애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공연장의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참여로 인해, 65개 공연으로 최종 확정되었지만 어디  
 숫자가 중요하랴. 다만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전국의 관객들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서로 다른 음악의 감동을 간직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동시에 하우스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접하며 기초문화를 다지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나는 멋지다.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

- 충남 보령에서 한정미 님

하루이 우리동네까지 찾아와주었던..

작년 이 즈음.. 아티스트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주신 무대에 무척 감동

먹었지요. 이제 나도 클래식연주자

팬카페도 가입해서 학창시절 신애철에

빠져 팬leter 보내 듯 ㅎㅎ

자주 들어가보곤 한답니다.

클래식 뿐 아니라 다채로운 공연 연주

알게 애준 하곤은 제 삶에 또 다른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듯 ^^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 줍니다.

- 전북 김제에서 이은주 님

하우스콘서트, 딸 아이가 너무 좋아해

저까지 왕 팬이 되었습니다!

- 울산에서 박문자 님

♡ 완전 집 같아요. 하곤 멋져요~ ♡

- 서울에서 손현서 어린이

고창군에서의 “하우스콘서트”를 관람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울까지 가야

콘서트를 볼 수있는 걸 내 고장에서

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다리는 내내

설레었고요. 자주는 아니어도 어쩌다가

한번씩이라도 지방에 있는 문화의

끓주림에 시달리는 팬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전북 고창에서 염주순 님

좋은 공연 감사드려요. 내년에 보령 또

와주세요! 방구 꺼서 미안해요

- 충남 보령의 P군

나에게 하우스콘서트는

음악과 친해지는 인연의 시작 ^^

- 인천에서 김미현 님

아름다운 선율이 느낌이 좋고도 좋았습니다.  
연주자와 관객이 코 앞에서 서로의  
공간에서 함께 힘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는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 충북 진천에서 50대 여성 관객

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 경기 부천시에서 서유미 님

하곤의 존재를 안 지는 제법 오래 되었는데,  
이제서야 왔네요.  
오래도록 주옥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이 일상이 되는 좋은 공간과 음악회를  
응원합니다.  
- 서울에서 손현 님

클래식에 흥미를 갖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 전남 장성에서 김정하 님

Inspring and be inspire. 올 때마다 새로운  
기운과 영감을 얻어갑니다. 늘 감사합니다.  
- 서울에서 제희경 님

아름다운 공연 감사합니다.  
- 경남 함안에서 송승환 님

앞으로도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  
많이 만들어주세요!  
- 전북 전주에서 이슬비 님

하곤, 힘내세요!! 하곤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기도합니다 ^^  
파이팅~!  
- 광주에서 김민지 님

## 방석 깔고 둘러앉아 듣는 모차르트 소나타

### 피아니스트 박창수의 '하우스 콘서트'... 올 전국 공연 300회 목표

(김성현 기자 danpa@chosun.com)

24일 인구 9만3000명의 전북 김제시 성산길의 김제문화예술회관. 오후 6시 30분에 공연장 문이 열리자 부모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총총 입장을 서둘렀다. 관객들이 향하는 곳은 객석이 아니라, 무대 위에 놓인 방석이다. 신발을 벗고 엄마 품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소년의 표정은 편안하기만 하다. 거실 같은 일상 공간도 얼마든지 음악회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2002년 피아니스트 박창수(49)씨가 시작한 '하우스 콘서트'가 전국 공연장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날의 '초대 손님'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37) 한양대 교수와 피아니스트 채문영(35)씨 부부. 불과 두세 걸음 앞에 웅기종기 앉은 관객 170명을 앞에 두고, 이 부부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18번으로 문을 열었다. '10년차 부부'의 앙상블에 부녀(父女) 관객은 손을 맞잡고 손동작으로 조용히 춤을 쳤다. 갓난아기를 업은 엄마는 아이가 칭얼거리려고 하자 연방 달래며 계단을 내려갔다. 하우스 콘서트에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도, 사실상 연령 제한도 없다. 바이올린을 갖 배우기 시작한 딸 한경(7)이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회사원 장현진(33)씨는 "연주회를 볼 기회가 드문데, 가까이서 연주자의 표정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중학생 아들과 연주회를 관람한 학원강사 김영미(43)씨는 "학기 중에는 짬을 내기 어려운데, 방학이라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고 했다. '카르멘 환상곡'과 '치고이네르바이젠'으로 1시간가량의 연주회를 마친 김 교수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망울로 끝까지 듣는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창수씨가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 2층을 개조해서 연주회장으로 만든 건 지난 2002년. 10여년간 세 차례 이사를 거쳐 지금은 도곡동의 스튜디오 율하우스에

둥지를 틀었다. 이달로 333회째 공연. 박씨는 "음악회가 서울에만 편중되어선 안 된다"면서 지난해 '하우스 콘서트'의 전국 진출을 선언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전국에 중극장 이상의 공연장이 민간 공연장을 합쳐 400여 곳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연주자들은 무대에 대한 갈증을 느끼죠. 하드웨어인 공연장과 소프트웨어인 연주자를 이어줘야 음악의 싹피줄도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지난해 7월 의정부에서 경남 거제까지 전국 23개 공연장에서 1주일간 100회의 공연을 게릴라 콘서트처럼 펼쳤고, 9000여 관객이 다녀갔다. 힘을 얻은 박씨는 올해 연중 상시 전국 공연을 기획했다. 그래서 전체 공연명도 '2013 하우스 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이다. 올해는 전국 공연장에서 신청을 받아 300~400회까지 연주 횟수를 늘리고, 2~3년 뒤에는 다시 1000회까지 늘린다는 게 박씨의 꿈이다. 난관도 있다. 무대 위에 관객들이 앉아서 연주를 듣는 '하우스 콘서트' 방식에 난색을 보이는 공연장도 많았다. 유명 연주자만을 선호하거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국 120개 공연장을 찾아가며 발품을 팔았던 '하우스 콘서트' 매니저 강선애(29)씨는 "장기적으로 이 공연장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라고 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씨는 "지역에는 관객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찾아가보면 반응은 직접적이고 뜨겁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문제 아닐까. 몽상가라고 불려도 좋다. 언제든 전투태세는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2013. 1. 26 조선일보 기사)

## 마루를 울리는 감동

# The House Concert

since 2002

더하우스콘서트는 주인공인 박창수 예술감독의 어린 시절 소박한 상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예고 재학시절, 연습을 위해 친구 집을 오가며 집에서 직접 듣는 음악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20년이 넘어서야 그 바람을 현실로 이룬 것이다. 악기의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마룻바닥을 울리는 음의 진동을 온 몸으로 느끼는 것이야말로 음악 감상의 진정한 매력이라는 것을 발견한 데에서 하우스콘서트는 시작되었다. 2002년 7월, 연희동 자택 일부를 개조해 만든 공간에서 국내 첫 살롱 음악회가 열렸고, 관객들은 의자가 아닌 마룻바닥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하우스콘서트는 연주자에게는 관객의 호응과 시선을, 관객에게는 연주자의 작은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에 하우스콘서트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소규모 공연장의 가능성을 인정 받았으며 첫 공연 이래 11년 동안 350여 회의 공연을 진행해왔다. 클래식을 중심으로 국악, 대중음악, 실험음악, 인형극, 독립영화 상영, 세미나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1천 5백 여명이 하우스콘서트와 함께 했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공연 실행음반은 100종이 발매되었다. 작고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된 더하우스콘서트는 끊임없이 발전해오며 많은 연주자들이 한 번쯤 서보고 싶은 무대, 관객들에게는 마음 한 구석에 늘 품고 있다가 언제든 다시 찾아오고 싶은 특별한 음악회로 거듭났다. 현재는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집'을 벗어나 2번의 이사를 거쳐 서울 도곡동의 녹음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함없이 더하우스콘서트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해가는 한편, 끊임없는 실험과 새로운 시도로 보다 나은 공연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 WHERE ?

하우스콘서트는 200회 공연을 기점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하우스콘서트의 공간이 더 이상 '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관객과 연주자 간에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공간이면 어디든 하우스콘서트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기로 한 것. 2번의 이사를 거쳐 서울 도곡동의 작은 레코딩 스튜디오로 장소를 옮겨오며 그 변화의 흐름을 주도한 하우스콘서트는 변함없는 도전정신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예술'의 정신을 담은 특별한 공간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하우스콘서트가 가진 개념을 공연장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병행하여 2012년 여름부터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WHAT ?

간간한 주인공이 세운 유별난 원칙대로 11년 동안 한 달에 2번 이상 꼬박꼬박 이어진 하우스콘서트는 2002년 7월, 제1회 공연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 7월 현재까지 350여 회의 공연을 열어오고 있다. 하우스콘서트가 11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실험 정신에 있다. 진지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음악가들을 발굴해내는데 힘쓰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영화를 상영하거나 세미나, 인형극, 연극 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공연 실행음반을 출시하는가 하면, 일부 공연에 한해서는 출연진도 공개하지 않고 예약부터 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한다.



**LIVE RECORDING**

하우스콘서트는 제1회 콘서트부터 모든 공연의 실황 녹음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2008년, 공연의 생생한 감동이 고스란히 담긴 실황음원을 음반으로 제작했다. 음반 공장은 따로 없다. 모두 하우스콘서트에서 직접 녹음을 진행하고 CD 라벨까지도 손으로 오리고 붙여 만든 정성이 가득한 수제품이다. 2013년 4월, 연주자들의 동의 아래 제작된 음반이 비로소 100종으로 완성되어 박스 세트까지 출시되었다. 권혁주, 김선욱, 김태형, 장중진 등 클래식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강산에, 우주히피, BARD, 10cm 등 하우스콘서트 무대에 오른 다양한 음악가들을 이 음반을 통해 만날 수 있다.

**SEMINAR**

문화, 예술, 철학 등 장르를 불문한 주제로 연사들의 고견과 관객들의 신선한 생각이 오가는 하우스콘서트 세미나. 2008년 9월 26일, 200회를 맞은 하우스콘서트는 이어령 선생을 모시고 <예술의 공간 찾기>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시대의 석학이 하우스콘서트를 찾겠다는 소식에 세대별 다양한 관객들이 공연이 아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관객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이와 같은 연사와 관객간의 쌍방향소통은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볼 수 있는 하우스콘서트의 변치 않는 컨셉트이다. 그동안 이강숙, 이만방, 박용실, 무세중, 박을미, 이명세, 황병기 등이 하우스콘서트 세미나를 찾았다.



**GALA CONCERT**

갈라 콘서트는 그 해, 하우스콘서트에서 만난 아티스트들이 한데 모인다. 3시간에 육박하는 릴레이 공연과 공연 후 이어지는 와인파티와 자유무대에서 아티스트와 관객은 하나가 된다. 매해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열리며 연간 공연 스케줄 중 몇 안 되는 예매 공연이기에 1분만에 예매가 완료되는 완판 사태는 언제나 벌어진다. 출연진을 미리 공개하지 않음에도 11초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180명의 예약이 마감되기도 하는 초절정 인기공연이다. 작은 공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소 불편하게 공연을 보더라도 언제나 갈라 콘서트가 풍요로운 이유는, 하우스콘서트가 늘 좋은 공연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객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

**SERIES**

2007년 시작된 시리즈 공연으로, 1년에 한번씩 한달 동안 매주 릴레이로 신예에서 거장에 이르는 아티스트들을 집중 조명한다. 출연 아티스트들의 면면과 프로그램의 우수성으로 인해 언론의 관심과 함께 재미를 넘어선 '꼭 챙겨봐야 할 공연'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시리즈 공연을 통해 소개된 신예 연주자들은 진지하고 목적 의식이 뚜렷한 연주자로 성장하여 숨은 보석을 찾아내는 하우스콘서트의 안목이 재확인되기도 했다. 2007년 바이올린 시리즈를 시작으로 피아노(2008), 실내악(2009), 연플러그드(2010), 작곡(2011), 탱고(2012), 재즈 시리즈(2013)가 진행된 바 있다.



## STAFF

---

예술감독  
박창수

그리고

고문  
김종식

하우스콘서트  
'2013 One Day Festival'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해주신

매니저  
강선애(수석)  
류혜정  
박혜림  
송민희

이상기술투자  
컴퍼니 100  
H기술  
강태욱 님  
故김대록 님  
김선욱 님  
김영희 님  
김지현 님  
류재준 님  
박선규 님  
박호웅 님  
오숙혜 님  
오주은 님  
이강숙 님  
이건열 님과

스태프  
김병직  
김신중  
신호철  
이복희  
장성학  
장진옥  
차신혜  
황인호

소액기부에 동참해주신  
수많은 분들께

디자인  
DESIGN do doo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THE HOUSE CONCERT

Website

[www.freepiano.net](http://www.freepiano.net) (하우스콘서트)  
[www.thc-project.com](http://www.thc-project.com) (전국 프로젝트)

SNS

[hconcert.tistory.com](http://hconcert.tistory.com)  
[www.facebook.com/thehouseconcert](http://www.facebook.com/thehouseconcert)  
[www.youtube.com/thehouseconcert](http://www.youtube.com/thehouseconcert)  
[www.twitter.com/hconcert](http://www.twitter.com/hconcert)

Contact us

02 - 576 - 7061  
[hconcert@naver.com](mailto:hconcert@naver.com)